

인권정보자료실
SAd1.2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보고서

2000



2000년 인권정보자료실 SAd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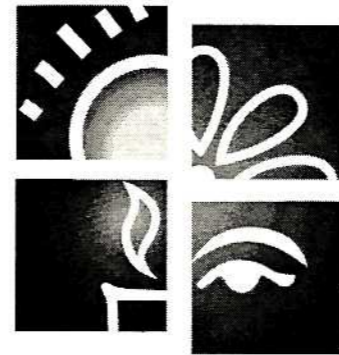
(주) 한국인권재단

인권정보자료실
SAd1.2

한국인권재단

(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근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보고서



2000



(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2000년법정 보고서를 발간하며



윤정옥 / 정대협 명예대표

2001년 12월 3~4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던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 법정' (이하 2000년법정)이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오게 되어 발간사를 쓰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령의 병약함 중에도 꾸준히 당신들의 인권회복과 일본 전범들의 심판을 위해 싸워오신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감사합니다. 히로히토 전 일본국왕의 사죄를 문서로 받지 않는 한 아무런 사죄도 인정할 수 없다며 '여성을 위한 아시아국민기금' (국민기금)을 단호히 뿌리치셨던 김학순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기금을 반대하고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위해 일본에 가야한다고 여권을 챙기시던 강덕경 할머니가 저 세상에서나마 기뻐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여러분의 소원대로, 히로히토 전 일본국왕은 도쿄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번 헤이그 최종판결에서 나머지 9명은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또한 2000년법정의 여러 위원회 위원들과 정대협의 각 위원회 위원들, 정대협의 간사들과 자원 봉사자들, 그동안 참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해주신 덕분에 헤이그 법정의 최종판결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1. 2000년법정은 1998년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연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큰 일이었습니다. 2000년법정은 일본 사법부의 재판소에서 모든 피해자들의 기소를 기각하고 앞으로도 승소의 기미가 전혀 없는 터에, 이 세상에는 엄연히 사회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피해자들이 실감할 수 있게 한 좋은 법정이었습니다. 성노예전범들이 단죄됨으로 사회정의를 회복되고 피해자들의 인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의가 살아있고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될 수 있는 사회에서는 평화를 창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2000년법정은 1948년 도쿄에서 열렸던 극동군사재판소에서의 재판에 대한 완결된 법정이기도 합니다. 극동군사재판소에서는 히로히토 전 일본국왕을 피고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법정에서는 그를 피고로 세웠을 뿐 아니라 유죄로 단죄했습니다. 그리고 극동군사재판에서는 일본군의 소위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기소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바로 이것을 위해 2000년법정을 구성한 것입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일본정부와 일본군 성노예제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 사람들과,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 일을 해 온 단체구성원과, 이 문제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4.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 함께 한 단체는 한국 뿐 아니라 모든 피해국과 일본의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여성들이 일본군성노예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한 것이었습니다. 더욱 뜻 깊었던 사실은 소수의 남성들이 이 일에 협력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가부장제 아래에서 장구한 세월동안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왔지만, 여성들이 속속들이 남성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그간의 시련이 여성들을 강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본군성노예전범들을 심판한 것은 복수하고자 해서가 아닙니다. 사회정의를 회복하여 피해자들의 인권을 찾고자 하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촉박했던 시간과 사정에도 불구하고 기여 2000년 12월에 도쿄에서 법정을 열었던 것은, 20세기 동안의 인간의 역사를 상징적으로나마 정리하고자 해서였습니다. 상징적으로나마 새 천년은 평화의 역사를 여는 새 장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2001년에 벌어지는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의 반테러 행위를 위한 전쟁이 일어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아무리 세상이 알 수 없어도 사람에게에는 꿈이 있어야지요.

남성들까지 포용하면서 모두가 함께 사는 새 역사를 열고자 하는 어리석으면서도 귀한 꿈의 발로가 바로 2000년법정이었습니다.

2000년법정에 세운 모든 전범들을 망자(亡者)들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개 70세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피해자들이 저 나라 사람들이 되더라도 일본이 사죄하고 배상할 때까지 일본에게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의 남성들이 월남전에 가서 그곳 여성들에게 지은 죄를 이제는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월남여성과 한국의 남성사이에서 태어난 생명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월남의 여성들과 두 나라 사이에 태어난 우리들의 2세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모른 채 한다면 일본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일본에게 사죄와 배상을 끝까지 요구하며, 월남에서 저지른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죄하고 어떤 형태로든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 2000년법정 : 2000. 12. 7 ~ 12. 12 / 일본 동경
- 최종판결 : 2001. 12. 3 ~ 4 / 네덜란드 헤이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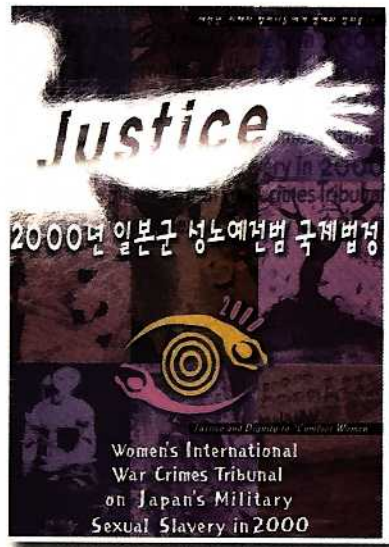
▲ 2000년 여성법정 국제로고



▲ 2000년법정 한국로고



▲ 2000년법정의 노래



2000년 법정 학생법정 및 지역문화제 개최

- 2000. 4 ~ 2000. 11 -

- 2000년법정 학생법정 (서울) : 2000. 4. 28 ~ 29 / 이화여대
- 전국 및 지역문화제 (2000. 8 ~ 11) - 거리선전전
서울 / 전주 / 대구 / 마산 / 수원 / 제주 / 부산 / 광주 / 창원
- 2000년법정 학생법정 (지역) : 부산대 / 창원대 / 동아대 / 전남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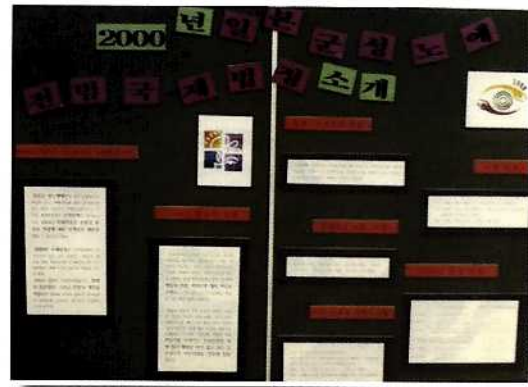
“옴의 힘으로! 다시, 일본군 성노예문제를 말한다”

■ 2000. 4. 28 ~ 29 / 이화여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1년 4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진행된 일본군성노예전범 학생법정은 이화여대에서 개최되어 300여명의 학생과 일반인이 함께 했다.



▲ 사이버캠페인
www.tribunal2000.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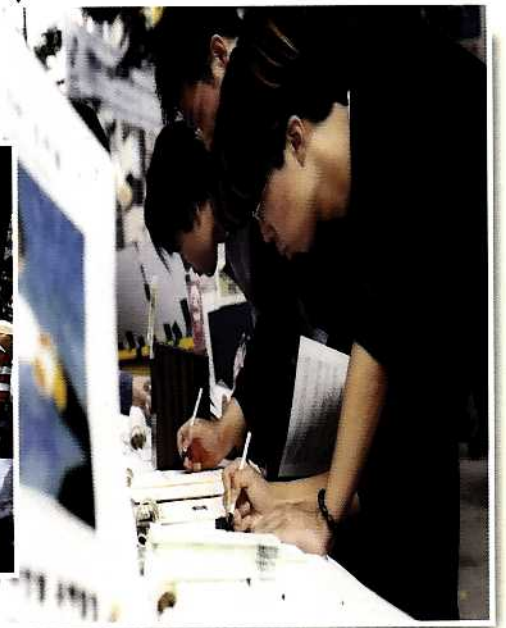


▲ 거리선전전
2000년법정 소개 홍보물

2000년법정 서명을 위한 거리캠페인 / 명동에서



▲ 2000년법정 행사를 위한 8·15기념 시위



2000년법정 개정마련 홍보버튼 :
국제 및 한국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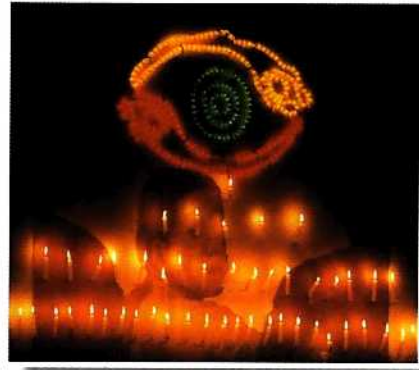


▲ 선전전에서 김학순할머니초상에 지문을
찍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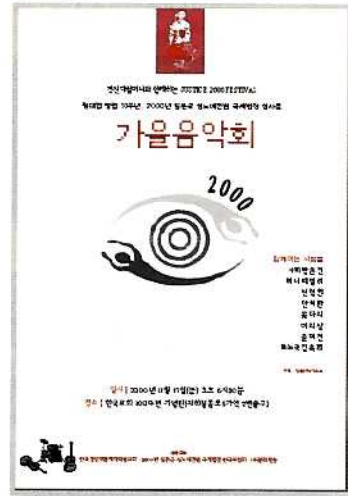
2000년법정 행사 및
남북공동기소 행사 8·15시위

2000년법정 재정마련을 위한
2001년 카렌다



가을음악회에서 할머니와
참가자들이 촛불을 꽂아 만든
끌려가는 위안부의 모습과
2000년법정 한국로고 모습

2000년법정
가을음악회 포스터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2000. 12. 7 ~ 12. 12 / 일본 동경

“할머니들에게 정의와 명예를!”



▲ 2000. 11. 16 정대협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정대협운동 10년의 회고와 전망'



▲ 국제실행위원회공동대표 (필리핀, 일본, 한국)

▲ 2000년법정 본법정 남북공동기소위원회



▲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본법정 남북공동기소 (2000. 12. 8)



▲ 2000년법정 남북증인 증언과 북측검사단



▲ 남측검사단 수석검사의 기소장면



▲ 2000년법정 국제검사단



▲ 남과 북의 피해자 할머니



▲ 2000년법정 참가단의 점심년전전



▲ 2000년법정 문화의 밤 콘서트 'SAY YES'



▲ 히로히토 유죄! 판사단, 피해자와 각국 참가단
◀ 2000년법정 개막식에서 현장을 읽는 수석판사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 최종판결

2001. 12. 3 ~ 4 / 네덜란드 헤이그

“기소된 히로히토 및
일본군성노예 전범자 전원 유죄!”



▲ 2000년법정 최종판결



▲ 판결문을 받아든 남과 북의 피해자



▲ 2000년법정 판결문을 든 각국의 피해자들



▲ 부라보! 남북할머니의 만남



▲ 2000년법정 최종판결 후 판사단과 각국피해자 ▲ 참가한 각국에서의 피해자 만남



▲ 남북한이 처음으로 이준열사관을 방문

차례

■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보고서를 발간하며

발간사 / 윤정옥

사진으로 보는 2000년법정

I.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준비과정

전문 / 양미강 · 3

1장 | 한국위원회

1. 한국위원회 조직 · 5

2. 한국위원회 활동 · 5

2장 | 국제실행위원회

1. 국제실행위원회 조직 · 8

2. 국제실행위원회 회의 · 11

3. 국제검사단 · 법률자문단 · 판사단 회의 · 18

3장 | 국내캠페인

1. 서울문화제 · 지역캠페인 · 24

2. 학생법정 · 학생문화제 · 27

3. 전국 릴레이 수요시위 · 아시아연대시위 · 28

4. 사이버 캠페인 · 29

5. 후원의 밤 · 29

6.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2000년법정 보고회 · 30

4장 | 국제캠페인

1. 독일 · 미국 · 일본캠페인 · 31

II.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전문 / 하종문 · 33

1. 2000년법정의 일정 · 내용 · 35
2. 2000년법정 녹취록(요약) · 37
3. 2000년법정 행사 · 63
4. 2000년법정 남북공동기소장 · 66
5. 약식판결문(동 성) · 한글 · 117
· 영어 · 129

III. 최종판결

개회사 / 윤정옥 · 143

1. 최종판결 및 국제회의 보고 · 145
2. 최종판결문(헤이그) · 159

IV. 2000년법정 평가

전문 / 김윤옥 · 191

평가좌담회 · 193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의 성과와 한계를 중심으로)

V. 부록

1. 2000년법정 연혁 · 213
2. 2000년법정 조직 · 218
3. 한국참가단 명단 · 220
4. 2000년법정을 위해 협조한 단체와 개인 · 221
5. 2000년법정 참관기 · 224
6. 언론보도자료 · 252

I.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준비과정

● 전 문

1장 한국위원회

1. 한국위원회 조직
2. 한국위원회 활동

2장 국제실행위원회

1. 국제실행위원회 조직
2. 국제실행위원회 회의
3. 국제검사단 · 법률자문단 · 판사단 회의

3장 국내캠페인

1. 서울문화제 · 지역캠페인
2. 학생법정 · 학생문화제
3. 전국 릴레이 수요시위 · 아시아 연대시위
4. 사이버 캠페인
5. 후원의 밤
6.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2000년법정 보고회
7. 「2000년법정 총서」출판기념회 · 최종판결 보고회

4장 국제캠페인

1. 독일 · 미국 · 일본 캠페인

1.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준비과정

○ 전문

여성의 힘으로! 아시아의 힘으로!

양미강(정대협 총무)

1998년 4월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2000년법정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이래, 만 2년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00년법정의 서막이 올랐다. 정대협이 1992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유엔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이후,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무력갈등 아래의 성폭력문제와 맞물려 국제여성운동의 핵심적인 주제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국제여성운동의 성과를 기반으로 여성들은 쿠마라스와미를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특별보고관으로 임명해 전 세계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여성에 관한 폭력'을 보고하여 그동안 간과해왔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곧 인권문제임을 부각해냈다.

국제여성운동의 가시적 성과는 1998년 유엔이 설립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서 무력갈등 아래에서 일어난 여성에 관한 성폭력을 전쟁범죄로 처벌할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제법은 무력갈등 아래에 일어난 여성에 대한 성폭력문제를 전쟁범죄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 직후 개최된 극동전범재판에서도 한 번도 처벌된 적이 없었다. 앞으로 상설화될 국제형사재판소 또한 향후에 일어날 전시 성폭력문제만을 다루게 되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제여성운동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받아 안지 못한 채, 미래의 세대들에게 넘겨질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고민 속에서 2000년법정이 잉태되었고, 더 이상 국가들간의 전범재판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민간차원에서 국제인권법정을 열기로 한 것이다.

2000년법정 운동의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시아 피해국 간의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강고해졌다는 점이다. 아시아 피해국 10개국이 2000년법정을 공동주최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한국의 정대협을 시발로 하여 일본, 필리핀, 대만, 중국, 북한 등 각 국에서 활발한 운동을 전개해왔고, 다섯 번의 아시아연대회의를 통해 일본정부에 대한 공동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동티모르, 네덜란드의 경우는 2000년법정을 통해 국내운동 조직이 보다 확고하게 자리잡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남북이 이념을 뛰어넘어 하나가 되었듯이,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 중국과 대만이 하나로 연결되어

그 어떤 정치적, 이념적, 사회적 장애물도 그들을 나누지 못했다.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가, 그리고 여성인권운동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정치적인 장애를 뛰어넘어 하나의 공통분모를 생성시켰던 것이다.

둘째, 세계여성운동과의 네트워크 강화도 큰 성과이다. 그동안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이 아시아 피해국 중심의 네트워크였다면, 2000년법정은 '위안부'운동의 지평을 현재 무력갈등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문제까지 확장시켜 폭넓은 세계여성운동과의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강화시켰다는 점이다. 2000년 12월 11일 개최된 국제공청회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2차 세계대전 뿐 아니라, 오늘날 어떤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었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전 세계적인 여성들의 관심과 운동의 결실을 부각시켰다.

셋째, 2000년법정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제도 피해의 실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했다는 점이다. 각국의 운동상황과 마찬가지로 진상규명작업 또한 각 국별로 차이가 많았으나, 2000년법정을 통해 '위안부' 제도의 피해사실이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을 수 있었으며, 어떤 경로로, 어느 부대의 책임자가, 어떻게 아시아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끌고 가 피해를 입혔는지 피해의 규모파악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성과 위에서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책임자를 기소할 수 있었다.

넷째, 2000년법정은 여성들의 통일운동의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1990년대 초부터 '위안부' 문제 해결에는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음을 재확인했으며, 수 차례의 남북 만남을 통해 공통의 인식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2000년법정은 그동안 쌓아왔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한의 신뢰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냈으며, 이것은 남북공동기소로 나타났다. 남북공동기소는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한민족 공동의 역사인식을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공동의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전 일본국왕과 전범자 7인에 대한 기소를 했다는 점에서 여성들의 통일운동의 획기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운동이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었다는 점이다. 운동가와 법률, 역사 등 각 영역의 연구자들이 결합되어 운동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국제실행위원회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판검사단을 영입하여 2000년법정을 권위있는 법정으로 인정받게 했으며, 한국위원회 역시 국제법 학자, 변호사, 연구자들이 결합하여 법률적인 면과 진상규명의 내용을 심화시키고 풍부한 인적자원을 담보하였다. 이뿐 아니라 서울 중심의 운동이 전주, 대구, 제주 등 각 지역으로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지역문화제와 학생법정을 통해 이 운동에 참여하는 계층이 시민과 대학생들로 훨씬 다양해졌다.

1장 I 한국위원회

1. 한국위원회 조직

- 위원장 : 윤정옥
- 부위원장 : 김윤옥, 정진성
- 법률위원회 : 김명기(위원장), 조시현(간사)
- 진상규명위원회 : 강정숙(위원장), 양현아, 여순주(증언팀장)
- 기획홍보위원회 : 지은희(위원장)
- 대외협력위원회 : 신혜수(위원장)
- 재정위원회 : 김혜원(위원장)
- 검사단위원회 : 김명기, 박원순, 조시현, 장완익, 김창록, 양현아, 강정숙, 하종문

2. 한국위원회 활동

○ 준비과정

1998년 4월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2000년법정을 개최하기로 공식 결정한 후, 정대협은 3차례의 준비모임을 통해 2000년법정의 성격과 향후 방향, 그리고 한국위원회 구성 등을 토론했다. 이를 위해 준비위원으로 윤정옥, 김윤옥, 지은희, 신혜수, 강정숙, 이미경, (양미강)을 선임하고, 한국위원회의 구성을 운동단체, 연구자, 법률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하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약간 명을 두기로 하였다.

○ 한국위원회

한국위원회는 1998년 12월 7일 발족한 이래 만 2년 간 11차례의 모임을 가지면서 2000년법정과 관련한 크고 작은 안건들을 처리하는 최고결정기구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국위원회 위원은 총 50여 명으로 이들은 주로 법학자, 변호사, 역사학자, 사회학자 등 연구자·전문가들과 운동단체로 구성되었으며 한국위원회 산하에 운영위원회와 5개 위원회(법률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 기획홍보위원회, 재정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사무국(정대협 사무국)을 두었다.

한국위원회는 거의 매월 월례모임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였다. 우선 2000년법정이 민간법정이며 동시에 인권법정이므로, 2000년법정에 관한 목적과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회, 최초의 민간법정의 선례인 러셀법정을 연구함으로써 2000년법정에 대한 구체적인 틀을 그려가기 시작했다. 이후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보는 시각(강정숙), 2000년법정의 구성(조시현), 2000년법정

과 피해자증언(최일숙)의 발제를 통해 한국이 답아야 할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후 한국위원회는, 2000년법정을 어떤 형식으로 가지고 갈 것인가를 토론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가장 대표적인 논제 중의 하나가 한국과 아시아의 성격에 맞는 법정형식을 만들어내는 일이었다. 미국과 유럽에서 채택하고 있는 배심원제도는 아시아의 성격에 맞지 않으며, 이 법정이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법정인 만큼 일본정부를 옹호하는 변호인제도를 두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뿐 아니라, 국제실행위원회에서 제안된 조직의 형태를 확대개편하여 독일과 미국 등 재외동포조직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히기로 하였으며, 2000년법정의 중요한 성과물로서 2000년법정 논문집 시리즈를 출판하기로 하였다.

○ 운영위원회

한국위원회는 약 50여 명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 각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운영위원회를 1999년 9월부터 가동하여 총 7차례 모임을 가졌다. 운영위원회는 국제실행위원회에서 제안된 판·검사단의 명단 검토, 국제실행위원회 제안 안건 검토, 남북 공동기소를 위한 제안 및 진행, 한국의 검사단 인선작업, 2000년법정 최종 역할분담 등이 주요한 내용이었다.

운영위원회는 특히, 2000년법정을 국내외적으로 홍보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전국 6개 도시에서 이루어진 2000년법정 국내 캠페인, 12개 대학교의 학생법정 및 학생문화제, 전국 릴레이 수요시위, 가을음악회, 정대협 10주년 기념으로 진행된 학술심포지엄 등과 더불어 미국과 독일에서 이루어진 국제캠페인 등이 주 내용이다.

○ 각 위원회별 회의

- 법률위원회

법률위원회는 2000년법정의 형식과 구성을 놓고 오랜 시간 토론에 토론을 거듭하였다. 가장 중요한 토론은 히로히토 전 일본국왕 처벌의 근거,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을 결합하는 재판의 형식, 2000년법정 현장의 형식과 구성, 변호사 선정의 문제, 남북공동기소장 작성의 원칙과 내용 등이었다.

2000년법정의 형식과 내용 토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2000년법정이 피해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인권법정이며, 동시에 민간법정이므로, 현행 법률 상에서 해결하지 못한 쟁점들을 이 법정에서는 창조적으로 극복하고자 하였다. 가장 큰 문제가 '사자(死者)' 처벌과 변호인제도였다. 여러 번의 토론을 거쳐서 아무리 죽은 자라 하더라도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최고 통수권자였던 히로히토 전 일본국왕의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동시에 필연적으로 가해자를 변호할 수밖에 없는 변호인제도를 두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변호인제도는 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대만 국제실행위

원회에서 일본의 제의로 도입했다.

- 진상규명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는 2000년법정을 위한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피해 조사를 위한 진상규명작업을 진행하였다. 1999년에는 사할린과 남태평양을, 2000년에는 오키나와를 현지 답사하였으며, 2000년법정 논문시리즈 중 진상규명 논문집을 위한 워크샵을 연속적으로 진행하였다. 진상규명위원회의 주된 사업은 기소장 작성에 있어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일이었다. 그동안 진행해온 피해자의 증언작업의 연속선상에서 서울과 지역 등 증언팀 두 그룹이 만들어져 전국적인 증언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 기획홍보위원회

기획홍보위원회의 사업은 주로 2000년법정의 전반적인 기획과 국내외적인 홍보활동이다. 특히 국내외 미디어의 활용은 2000년법정을 홍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으며, 2000년법정 논문시리즈를 총서로 기획하여 진행하였다. 이뿐 아니라, 2000년법정의 참가단 모집과 홍보를 위한 각 단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 대외협력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는 국제회의 참가, 일본과 필리핀 등 공동사무국과의 원활한 역할분담 등을 주로 담당하였다. 2000년법정 국제실행위원회의 영어 뉴스레터를 발간하였고, 2000년법정의 홍보를 위한 국내 기자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 재정위원회

2000년법정의 재정은 한국측 분담금 10만불을 포함하여 약 4억여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행사였다. 2000년법정의 재정마련을 위한 각종 수익사업(버튼, 달력, 송화가투 판매)과 후원의 밤 행사, 국내외캠페인을 통한 모금활동, 국내 기업이나 단체 후원금, 국내외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여 2000년법정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2장 I 국제실행위원회

1. 국제실행위원회 조직

○ 국제실행위원회

- 한 국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북 한 :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 중 국 : 상해 중국위안부연구센터
- 대 만 : 태복시 부녀구원사회복지사업기금회
- 필 리 핀 : 여성의 아시아인권센터
- 인도네시아 : 정의와 민주화를 위한 인도네시아여성협의회
- 네덜란드 : 네덜란드 여성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
- 동티모르 : 유엔독립정부
- 일 본 : 바우넷 재팬

○ 공동대표단

- 한 국 : 윤정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 일 본 : 마쯔이 야요리(바우넷 재팬 대표)
- 필리핀 : 인다이 사호르(여성의 아시아인권센터 대표)

○ 판사단

- 가브리엘 커크 맥도널드(Gabrielle Kirk McDonald, 전 유고전범 재판장, 미국)
- P.N. 바그와티(P. N. Bhagwati, UN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영국)
- 윌리 무통가(Willy Mutunga, 케냐 인권위원회 위원장, 케냐)
- 크리스틴 친킨(Christin Chinkin, 런던대학 법과대학 교수, 영국)

○ 법률고문단

- 론다 코플란(Rhonda Copellon, 뉴욕대 법과대학 교수, 미국)
- 테오 반 보벤(Theo Van Boven, 네덜란드 대학 법학과 교수, 네덜란드)
- 켈리 다운 아스킨(Kelly Dawn Askin, 워싱턴 대학 법학과 교수, 미국)
- 베리 무룽기(Betty Murungi, FIDA-케냐)

○ 국제검사단

- 패트리샤 셀러즈(Patricia Viseur-Sellers, 전 유고전범재판소 검사, 미국)
- 우스티나 돌고폴(Ustinia Dolgopol, 플린터 대학 법학과교수, 오스트레일리아)

○ 각국 검사단

한국/북한

- 김명기(한국, 명지대 법학과 명예교수)
- 조시현(한국,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 김창록(한국, 부산대 법학과 교수)
- 장완익(한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 박원순(한국, 참여연대, 변호사)
- 강정숙(한국, 한국정신대연구소)
- 하종문(한국, 한신대 국제학부 교수)
- 양현아(한국,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 황호남(북한,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위원회 서기장)
- 정남영(북한, 북한 사회과학원 교수)

중국

- Mr. Zhou Hong-jun(법학자)
- Mr. Su Zhi Liang(상하이 대학 역사학과 교수)
- Li Xiushi
- Gong Bia Hua
- Guan Jiangiang
- Zhu Cheng Shan
- Chen Li Fei

대만

- Mr. Liao Ying-Chin(변호사)
- Ms. Lu Chia Hsiang(태복시 부녀구원사회복지사업기금회)
- Mr. Chuang Kuo-Ming(변호사)

필리핀

- Dr. Merlin Magallona(필리핀 대학 법학과 교수)
- Atty. Sedfrey Candelaria(Ateneo 대학 법학과 교수)
- Dr. Purification Quisumbing(필리핀 고등재판소)
- Prof. Ricardo Jose(필리핀 대학 역사학과 교수)
- Atty. Evalyn Ursua(필리핀 대학 법학과 교수)
- Ms. Aurora Javate de Dios(미리암 대학)

인도네시아

- Nursyahbhani Katjasungkana(변호사)
- Antarinr Ama(변호사)
- Paulus R. Mahulette(변호사)

네덜란드

- Atty. Henry Grant(ICTY 검사)

동티모르

- Carmeliata Caetano Moniz(UNTAET)
- Maria Natércia Gusmao(UNTAET)

말레이시아

- Rosalind Saw(변호사)

일본

- Atty. Yuichi Yokota(변호사)
- Atty. Yasushi Higashizawa(변호사)
- Atty. Kazuko Kawaguchi(변호사)
- Prof. Kobi Abe(학자)
- Prof. Shin Hae Bong(학자)

○ 아미쿠스 쿠리에(Amicus Curae)

- Tusguo Imamura(변호사, 일본)

○ 전문가증인단

- Frits Kalshoven(국가책임, 라이덴 대학 교수)
- Theo Van Boven(배상, 메트리히트 대학 교수)
- Gay McDougall(인종차별 및 성문제, 전 유엔인권소위 특별보고관)
- Hayasi Hirohumi(일본의 황국군대, 칸트 가쿠인 대학 교수)
- Yoshimi Yoshiaki(위안소제도, 주오 대학 교수)
- Lepa Mladjenovic(트라우마, 성폭력 여성센터)
- Yamada Akira(히로히토 전 일본국왕, 메이지대 교수)

○ 공동사무국

- 한 국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일 본 : 바우넷 재팬
- 필리핀 : 여성의 아시아인권센터

2. 국제실행위원회 회의

○ 1차 창립 서울회의

- 일시 : 1999. 2. 18~19
- 장소 : 정대협 교육관
- 참가 : 한국, 일본, 필리핀, 대만
- 논의 :

1. 2000년법정 구성을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함.
배심원 10명, 재판관 5명, 검사단 3명(검사장 1명-여성, 검사 2명-남성)
변호사단 : 미정(한국과 일본의 입장의 차이)
2. 2000년법정 기간을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하기로 결정함.
12. 4~5 / 참가자 도착
12. 6~7 / 국제회의(무력갈등 하 성노예 상황에 있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전략회의 ; 보스니아, 르완다 등)
12. 8~10 / 국제법정(재판관 발표, 배심원 발표)
3. 국제실행위원회를 조직함.
(1) 영어명은 Women's Tribunal International Organizing Committee로 하고, WTIOC를 약어로 사용
(2) 조직과 공동대표를 다음과 같이 구성
Japan Organizing Committee : Matsui Yayori(VAWW-Net Japan)
Organizations of Victimized : Yun, Chung-Ok(Korean Council)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 Indai Sajor(VAWW-Net International)
4. 향후 2년간의 일정을 대략적으로 결정함.
· 1999년
2월 2000년법정 국제실행위원회 발족
3월 국제자문단에게 서울회의 결과 발송
4월 홍보물 제작
5월 헤이그 인권평화회의에 참석(윤정옥, 마쯔이 야요리, 조시현, 나카하라 미찌코, 김윤옥, 인다이 사호르), 배심원 명단 작성
6월 게이 맥두걸 초청 서울 국제심포지엄, 법률가모임(대만, 일본, 한국, 필리핀 법률가 그룹 ; 2000년 법정에 변호사를 둘 것인가를 결정)
7월 재판관과 배심원, 검사단 초청장 발송
9월 제2차 2000년법정 기본안 작성
12월 2000년법정을 위한 도쿄 국제회의(9일/ 회의, 10~11일/각 국 참가자, 국제자문단 회의, 12일/공개심포지엄), 진상규명작업 1차 완료, 각 국의 진상규명활동 논의
· 2000년

- 1월 모금활동 시작
- 2월 재판관, 배심원에게 추가작업
- 3월 한국 진상규명작업 완료, 전문가 그룹에게 참가요청서
- 6월 2000년법정을 위한 최종회의(마닐라, 4째 주)
- 8월 진상규명작업 완료, 영어로 번역
- 9월 재판관, 배심원에게 문서 발송
- 12월 2000년법정

○ 2차 도쿄회의

- 일시 : 1999. 10. 1~2
 - 장소 : 일본 동경 교퐁회 회의실
 - 참석 : 한국, 일본, 필리핀, 대만
 - 논의 :
1. 법정에 관한 토론
 - (1) 참가자수 예측
한국 100~150명, 북한 5명, 중국 10명, 대만 15명, 필리핀 20명, 인도네시아 10명, 말레이시아 5명, 네덜란드 10명을 포함하여 대략 1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를 모색하기로 함.
 - (2) 법정 공용어를 영어, 한국어, 일본어로 하고 다른 언어가 필요한 경우 “귓속말 통역”(Whisper Translation)하기로 함.
 - (3) 국제자문위원회(IAC)의 자문을 받은 인디아가 마련한 판사단, 검사단 명단에 대한 구두설명을 들음.
 - 1) 판사단에 Françoise Hampson(유엔 인권소위), Belo 주교, Danielle Mitterrand 이 거론되고 한국은 한승헌 전 감사원장을 추천함.
 - 2) 검사단에 한 명의 검사장(Chief Prosecutor)과 각 국에서 뽑은 7명의 검사를 두기로 함.
 - (4) 법정의 전개형식에 대해 한국 측이 제시한 형식에 대해 대체적으로 호응함.
 2. 조직개편
한국 측의 여러 차례에 걸친 문제제기 끝에 한국 측 안을 그대로 수용
 3. 국제회의 개최
오늘날의 무력충돌 중의 여성폭력 문제를 주제로 법정 폐막 후 1일 국제회의 개최하기로 함.
 4. 기금마련
국제실행위원회에 기금마련을 위한 소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한국 10만불, 일본 20만불, 필리핀이 나머지를 마련하기로 함.
 5. 행사일정표 확정(1999~2000)

6. 홍보
법정 브로셔를 만들기로 하고, 공통 문구를 마련하기로 함.
7. 현장/규약
국제자문위원회의 바히다가 작성한 안을 중심으로 논의한 일본 측 안과 한국 측 안을 놓고 논의, '현장'으로 명칭을 정하고 전문과 조문화하는 형식에 합의함.

○ 3차 상해회의

- 일시 : 2000. 3. 30~4. 2
 - 장소 : 중국 상해 상해사범대학
 - 참석 : 한국, 북한, 대만, 중국, 일본, 필리핀
 - 논의 :
1. 국제공청회
 - (1) Contact Person은 바히다 나이나르(Women's Caucus)에 맡기기로 하고, 전체 구성은 1부는 피해자들의 증언, 2부는 Empowering Women으로하기로 함.
 - (2) 일본군 성노예제와 최근의 무력갈등 아래의 성폭력을 밀접히 연결하여 진행하기로 함.
 2. 2000년법정 홍보 및 홍보물 제작
 - (1) 2000년법정 로고는 필리핀에서 준비한 것을 사용하기로 하고, 2000년법정 활동소식지를 만들어 배포하기로 함.
 - (2) 각 국의 지원그룹(개인과 단체 등)의 메시지를 받아 책으로 발간하기로 함.
 3. 현장 확정
상해에서 열린 현장위원회가 만든 현장을 확정하고, 인디아가 현장을 판사단에 게 검토하도록 함.
 4. 검사단 및 판사단 수락상황 점검
현재 가브리엘 맥도널드와 피에르 사네가 판사직 수락을 고려하고 있으며, 한국은 박원순 변호사 외, 일본은 히가시자와 야스시 변호사 등이 각 국의 검사로 확정됨.
 5. 국제언론 홍보전략
국제홍보를 전담할 사람을 찾고 있으며, 9월 대만회의까지 확정하기로 함.
 6. 향후 일정 및 업무
7월 마닐라 IOC 회의와 9월 타이페이 IOC회의 등의 일정을 확정

○ 4차 마닐라회의

- 일시 : 2000. 7. 28~31
- 장소 : 필리핀 퀘존시티 센추리 임페리얼 팰러시 스위트
(Century Imperial Palace Suites)
- 참석 : 한국, 북한,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국제검사단(페트리샤 셀러즈,

우스티나 돌고폴), 법률자문단(론다 코페론)

· 논의 :

1. 개막식을 12월 7일 진행하기로 하고 각 나라가 참여하는 형태의 기본안을 결정함.
2. 2000년법정에 전문가 증인을 각 영역별(배상, 트라우마, 일본군대와 명령체계, 여성과 인종주의 관점)로 초청하기로 함.
3. 판사단은 가브리엘 맥도널드, 피에르 사네, 카르멘 알히바이 등을 확정하고 크리스틴 친킨 등을 추천함.
4. 각 진행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공식통역에 한, 영, 일어를 확정함.
5. 2000년법정 시 각 국의 기소 일정을 다음과 같이 확정함.
 - * 첫째 날 : 남한, 북한, 대만
 - * 둘째 날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 * 셋째 날 : 네덜란드, 일본
6. 2000년법정 참가자들을 위한 책 출판은 필리핀의 아센트(Ascent)가 진행하기로 했으나, 출판의 명의에 대한 이견때문에 출판하지 않는 것을 합의함.
7. 국제공청회는 원안 그대로 진행하기로 함.
8. 국제홍보팀을 각 나라별로 1명씩 구성하여 국제실행위원회 홍보팀을 운영하기로 함.
9. 세계 NGO와 개인들이 2000년법정에 많이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하고, 지지서명을 받을 때 이름, 소속, 지지내용, 후원의 종류 등을 명기하도록 함.
10. 재정마련을 위해 총 소요예산을 50만불로 산출하고 일본 20만불, 한국 10만불, 필리핀 10만불, 대만 5만불로 수입을 잡고 세부안은 대만회의에서 결정하고 재정팀을 구성하기로 함.
11. 기타역할로 미디어팀 코디네이터는 한국, 재정팀 코디네이터는 일본이 맡기로 함.

○ 5차 대만회의

· 일시 : 2000. 9. 14~18

· 장소 : 대만 타이페이 아카데미아 신시아(Academia Sincia)

· 참석 :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동티모르, 국제검사단 (패트리샤 셀러즈, 우스티나 돌고폴), 법률자문단(론다 코페론)

· 논의 :

1. 전문가 증인 7명을 선정하기로 함.
 - (1) 트라우마 : 미정
 - (2) 히로히토 : Herbert P. Bix 추천
 - (3) 일본군대 체제 : 하야시 히로후미
 - (4) 위안소 : 요시미 요시아키

(5) 배상 : 반 보벤

(6) 국가책임 : 프리츠 칼소벤(동경재판 전문가)

(7) 인종주의와 여성관점 : 게이 맥두걸

2. 2000년법정 최종일정을 확정함.

12. 4 / 각 국 검사단과 증인 도착

12. 5 / 각 국 법정 리허설(1), 판사단 동경 도착

12. 6 / 각 국 법정 리허설(2), 판사단 및 검사단별 회의

필리핀 위안부 일본 소송 대법원 판결 및 기자회견

12. 7 / 개막식

12. 8 / 본 법정(남북, 중국), 특별 프로그램 참가자 환영만찬

12. 9 / 본 법정(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특별프로그램 영화제

12.10 / 본 법정(동티모르, 네덜란드, 일본)특별프로그램 세계인권의 날 문화의 밤

12.11 / 국제 공청회, 특별 프로그램 피해자들(위안부와 현재의 성폭력)과의 만남

12.12 / 판결 및 폐막, 특별 프로그램 연대시위

12.13 / 전략회의(국제 NGOs, 일본군'위안부'관련단체와 현재 성폭력 지원단체들)

3. 역할을 다음과 같이 나누기로 함.

(1) 참가비의 등급을 두기로 함. 아시아 피해국 참가자들을 제외한 외국인은 250불, 일본인은 매일 3000엔을 받기로 함.

(2) 프로그램은 각 국의 언어로 번역한다.

(3) 각 국은 11월 29일(수) 12시 정각에 각 국의 일본대사관 앞에 모여 연대수요시위를 갖고 캠페인을 진행

(4) 법정 서기국을 설치

- 역할은 법정기록을 작성하고 법정자료를 판사단에게 제출하는 일들을 맡는다.

- 각 국별로 1명의 책임자를 둔다.

(5) 미디어팀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코디네이터는 한국이 담당한다.

- 소규모 기획팀을 한국,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로 구성한다.

- 사진과 비디오는 바우넷 재팬에서 준비하되, 각 국에서도 준비한다.

(6) 자료정리를 위해 법원 속기사를 필리핀 팀에서 영어가능자로 데려와 법정기록을 담당하게 한다.

(7) 사무처는 일본이 주로 담당하고 각 나라별로 영어를 사용하는 자원봉사자를 배치한다.

(8) 피해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를 배치한다.

(9) 2000년법정 전체 무대감독을 필리핀 Bahn Servantes로 위촉한다.

(10) 보안은 경찰에 의뢰하며, 증인보호를 위해(Victims witness protection unit) 프

로그래를 실시한다.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스크린 뒤에서 증언할 수 있는 체제

를 갖춘다.

- (11) 전반적인 회계업무는 바우넷 재팬이 맡는다.
- (12) 사무국에 안내 데스크를 설치한다.
- (13) VIP 전담팀을 구성한다.
- (14) 2000년법정 특별프로그램은 매일 오후 6:30~8:30까지 이루어진다.
 - 개막식은 한국, 환영만찬은 일본이 담당한다.
 - 폐막식 이후 일본정부 등에게 문건을 전달하고 시위를 한다.

○ 6차 도쿄회의

- 일시 : 2000. 11. 17~21
 - 장소 : 일본 동경 바우넷 재팬 사무실
 - 참석 : 한국, 일본, 필리핀
 - 논의 :
1. 법정 진행형식은 기소장 낭독, 피해자 증언, 증거제시의 구성요건을 되도록 갖추기로 함.
 2. 개막식은 통역자를 두기보다는 한국, 일본, 필리핀 3인이 공동사회를 보기로 하고, 2000년법정 로고의 깃발입장, 돌아가신 피해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진혼무 등의 순서를 넣기로 함.
 3. 2000년법정을 위해 법정 서기국을 운영하기로 하고 판사단에게 제출할 서류 및 자료수발을 담당하기로 함.
 4. IOC주최의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함 : 환영만찬(12.8), 비디오 페스티벌(12.9) 아시아문화의 밤(12.10), 피해자들간의 만남(12.11), 데모(12.12)
 5. 상세한 업무분장을 마련함.
 - (1) 프로그램 자료집
 - 한글, 영어, 일어 : 각국 언어로 각기 제작
 - 내용 : 인사말, 2000년법정의 의미와 경과, 본 법정 세부일정, 현장, 각 국의 운동단체 소개, 연혁, 각국의 피해자 현황 등
 - (2) 전시 및 홍보부스
 - 책임자 : 일본, 조력자 : 각 국 1명
 - 각 국별로 전시물 내용 확인작업
 - (3) 의료 지원
 - 구단회관 내 의사 1명, 간호원 2명 상주, 응급상황 시 지정병원
 - 기본적으로 각 국이 피해자를 돌봄
 - (4) VIP 접대
 - 내용 : 공항과 시내 공항터미널 등에서 안내, 호텔에서 기본적인 생활 안내 및 접대
 - 구성 : 일본(책임자), 각 국 8명(각 국 1명, 영어 가능자)

(5) 미디어팀 운용

- 내용 : 국내외 신문 방송 담당, 피해자 인터뷰 연결
- 구성 : 2000년법정에 관한 인터뷰(윤정옥, 인다이, 마쯔이 야요리), 미디어를 위해 회관 2층 제공, 포토라인 설정, 기자증 발급, 기자실 마련, 각종 기기 마련
- 조직 : 다카하시(책임자), 신혜수, 필리핀
- 한국 미디어팀 : 이김정희(여성신문), 박민희(한겨레신문), 안해룡 외 4명(아시아프레스), 조현숙(인터넷대안TV), 오마이뉴스 2명(인터넷생중계)

(6) 보안

- 구단회관 외부에 경찰 배치, 내부에 사복경찰 5명 배치, 국회의원 4명 참석

(7) 인터넷 생중계

- 현지 생방송, 홈페이지 링크, 압축 보도
- 영어 생방송

6. 수정예산안을 40만불 규모로 확정 통과함.

○ 7차 서울회의

- 일시 : 2001. 2. 22~23
 - 장소 : 정대협 교육관
 - 참석 : 한국, 일본 필리핀, 중국
 - 논의 :
1. 최종판결은 국제전범재판의 상징성을 고려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5. 24~25 혹은 5. 22~23일에 개최하기로 함.
 2. 인다이가 요청한 네덜란드 NOVIB지원금 액수에 따라 행사규모를 결정하기로 함.
 3. 만약 NOVIB에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뉴욕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최소한의 경비로 진행하기로 함.

○ 8차 뉴욕회의

- 일시 : 2001. 9. 22~23
 - 장소 : 미국 뉴욕 우먼스 코커스,
 - 참석 : 한국, 필리핀, 일본(전화)
 - 논의 :
1. 최종판결을 위해 한국과 일본, 필리핀이 최종업무 분담을 논의함
 2. 아시아 피해국 참가자들을 위한 재정을 분담하기로 하고 한국은 북한 4명의 체제비를, 일본은 중국 4명의 체제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국제실행위원회가 노비브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기로 함

3. 국제검사단 · 법률자문단 · 판사단 회의

○ 국제검사단 1차 상해회의

- 일시 : 2000. 3. 30~31
- 장소 : 중국 상해
- 참석 : 한국, 북한, 일본, 대만, 중국, 필리핀

1. 현장위원회

- 일시 : 2000. 3. 30~31
- 장소 : 중국 상해
- 참석 : 한국, 북한, 일본, 대만, 중국, 필리핀
- 논의 :

- (1) 2000년법정이 권위 있는 민간법정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법적 책임과 개인의 법적 책임에 관한 내용을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함.
- (2) 전 일본국왕의 책임은 개인의 법적 책임으로 수렴하기로 함.

2. 기소장위원회

- 일시 : 2000. 3. 31
- 참석 : 한국, 북한, 일본, 필리핀
- 논의 :

- (1) 각 나라가 준비하는 기소장은 전체 기소장의 요약본의 형태로 10페이지 내외로 정리하기로 함.
- (2) 기소장의 중심적인 단어를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and Sexual Violence로 사용하기로 함.
- (3) 각 국 검사단과 수석 검사단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로 함.
- (4) 각 국 기소장을 영어로 완성하는 일정을 2000년 7월까지 하기로 함.
- (5) 각 국별로 기소장 준비사항을 보고함.

○ 국제검사단 2차 마닐라회의

- 일시 : 2000. 7. 28(금)
- 장소 : 필리핀 퀘존시티
- 참석 : 국제검사단(우스티나 돌고폴, 패트리샤 셀러즈),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 논의 :

1. 피고의 수준을 상위로 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각 국의 기소장의 상황과 정황증거를 통해 판명하기로 함.
2. 죽은 자에 대한 처벌은 국제법의 현실 상 불가능하지만, 인권법정으로써의 2000

년법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가능하다고 판단하기로 함.

3. 현실적으로 전 일본국왕의 '위안부' 관련 책임을 직접적으로 나타낼 증거는 찾기 힘들나 당시 최고통수권자이므로 전 일본국왕을 기소하기로 함.
4. 국제검사단이 각 국 검사단의 기소장을 모아서 하나의 기소장을 작성하는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법정 시나리오만을 개략적으로 구성하고 자세한 사항은 대만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함.
 - * Opening Remark / 판사 - 2000년법정의 역사 설명
 - * 국제검사단의 발언 / 전체개요,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
 - * 각 국 검사단 /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프리젠테이션, 기소와 법률적용
 - * 국제검사단의 요약 / 전체상황을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기소대상자를 발표
5. 일본에서 문제 제기한 변호인 선정요구에 대해, 처음 결정대로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기로 하고, 기소장에 일본정부의 반론을 신는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함.
6. 2000년법정 이전에 일본정부에게 소환장을 편지형식으로 발송하기로 하고, 대만 회의에서 구체적인 형식을 만들어 검토하기로 함.
7. 현장의 서문 등 일부분을 수정하고 13조는 삭제하기로 함.

○ 국제검사단 3차 대만회의

- 일시 : 2000. 9. 15~17
- 장소 : 대만 타이페이 아카데미아 신시아(Academia Sincia)
- 참석 :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동티모르, 국제검사단(패트리샤 셀러즈, 우스티나 돌고폴), 법률자문단(론다 코플론)

· 논의 :

1. 각 국의 기소장 작성의 형식을 합의함.
 - * 일련번호를 사용한 국제문서의 형식을 따르고 누른베르크 문건을 모델로 이용
 - * 아시아 공통의 역사적 배경을 각 국이 서술하고 각 국의 역사적 배경을 서술
 - * 용어는 'Comfort Women', 'Sexual Slavery'를 역사적 맥락에 따라 이용하고 'Occupy', 'Colony', 'Annex' 등 성격에 따라 구분.
 - 'Survivor', 'Victim'은 Survivor를 사용
2. 일본정부에게 보내는 소환장 혹은 편지는, 한달 전인 11월 12일 경 발송하는 것으로 하고, 판사단과 의논하기로 함.
3. 기소의 주체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사람으로 하기로 함.
4. 피고인을 세우는 일은 주로 고위급을 세우기로 하고 반드시 특정이름을 거명하고 인적사항을 기록하기로 함.
5. 변호인을 선정하는 일은 일본측에 의해 다시 제기되어 각 국의 동의를 얻어 변호인제를 채택하기로 함.
6. 1차적으로 일본정부의 책임을 묻는데 초점을 두기로 하고, 대신 판결문에 연합

국의 책임을 언급하기로 하며, 남북공동기소장에 일본정부 책임을 언급하는 부분에 삽입함.

7. 기소장 작성 형식을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함.

Background

Historical Background : country

Background : Facts

Accused

Hirohito

Prime minister

Governor general

etc.,

General Allegations

War Crimes

Crimes Against Humanity

Common Legal Paragraph

Courts

CAH - Enslavement, Rape, Torture, Slave etc.

8. 법정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함.

개회(1시간)

- 국제검사단 2명(45분) : 법정 진행, 법정 목적, 법 적용 문제 등
- 변호인 1명(15분) : 일본정부의 입장

일본의 증거(1시간) / 전문가증인 3명

- 히로히토 전 일본국왕 / Herbert P. Bix
- 일본군 체계 / Hayashi Hirofumi
- 일본군 위안소 / Yoshimi Yoshiaki

각 국 기소장 발표(각 국 당 90분)

- 12월 8일 1) 남북 공동 : 3시간
- 2) 중국
- 12월 9일 3) 대만
- 4) 필리핀
- 5) 인도네시아
- 12월 10일 6) 네덜란드
- 7) 동티모르
- 8) 일본

전문가 증인 2명(40분)

- 여성과 인종의 관점 / 게이 맥두걸

- 트라우마 / 미정

일본 가해자의 증언(30분)

- 가해자 2명

전문가 증인 2명(40분)

- 국가의 책임 / 칼쇼벤(Flitz Kalshovin)
- 배상 / 테오 벤 보벤(Theo Van Boven)

폐회(1시간)

- 국제검사단 1명 : 요약, 정리
- 일본변호인 : 항변 이유

○ 범률자문단 1차 워싱턴회의

· 일시 : 1999. 11. 10~12

· 장소 : 미국 워싱턴 힐튼호텔

· 참석 : 우스티나 돌고폴, 윤정옥, 마쯔이 야요리, 인다이 사호르, 쓰지이 미호, 살롯 번치, 플로렌스 버터구와

· 논의 :

1. 법정을 3일 동안 진행하기로 하고, 1일 총 7시간으로 하기로 함.
2. 기소 요지발표에 필요한 시간은 각 나라가 90분씩 하기로 함(검사진술 30분, 피해자 증언 30분(2명), 조사자 진술 30분).
3. 기소국을 7개국으로 하기로 함(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중국, 북한, 한국, 일본).
4. 검사장으로 지난 10월 국제실행위원회에서 추천했던 아스마(검사장, 파키스탄)와 레베카(검사장보, 캐나다) 2인으로 검사장단을 구성하기로 함.
5. 판사, 검사, 전문가 증인에게 정식초대장을 발송하되, 전자메일로 초대장을 먼저 보내기로 함.
6. 판사와 전문가 증인들에게 법정의 성격을 알리는 설명서를 미리 보내며, 2000년 법정이 끝난 후에 공청회가 계속됨을 알려 계속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참석할 수 있도록 함.
7. 2000년법정 판검사단(안) 및 전문가증인단(안) 명단을 발표함.

△ 검사단 구성

* 검사단 : 총 9명으로 2인1조 부장검사단을 구성

* 검사장단(안) : Ms. Asma Jahangir(파키스탄), Ms. 레베카(캐나다)

* 각 국 검사단 : 박원순(한국), 우스티나 돌고폴(호주), 머린 마갈로나(필리핀) 등

△ 판사단 구성

* 판사단 : 총 7명

- Ms. Danielle Mitterand
(전 미테랑 대통령 부인, 부장판사, Human Rights Summit 의장)
- Ms. Louise Joinat
(미국 국제 프랑스 판사, Impunity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 Ms. Gracia Machal
(모잠비크 어린이회 회장, 넬슨 만델라 부인)
- Ms. Isabel Allende
(칠레, 국회의원, 인권운동가, 전 칠레 대통령 아헨데의 딸, 독재자 피노체트에게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을 위해 인권과 사회정의 회복을 위해 운동)
- Ms. Pierre Sane
(세네갈, 국제앰네스티 회장)
- Ms. Virtit Matterborn
(태국, 출라롱콩대 교수, 어린이 매매춘과 학대받는 어린이 보호운동, 전 어린이에 대한 유엔특별보고관)
- Ms. Gabriela McDonald
(미국, 전 유고전범재판 재판장)

△ 전문가증인 구성

* 전문가증인단 : 총 4명

- Ms. Rhadhika Coomaraswamy
(스리랑카, 여성에 대한 폭력 유엔특별보고관)
- Ms. Patricia Viseur-Sellers
(아프리카계 미국인, 유고와 르완다 전범재판 시 폭력을 당한 여성을 위한 검사보)
- Ms. Judith Herman
(미국 하버드대, 트라우마 전공)
- Ms. 아키라 후지와라
(藤原 아키라, 일본역사 및 일본제국군대사 전공)

△ 원고단 구성

* 원고단 : 총 14명으로 각 국별로 2명(한국, 북한, 대만,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일본)

○ 판사단 헤이그회의

• 일시 : 2000. 10. 26~27

• 장소 : 네덜란드 헤이그 노비브 빌딩

• 참석 : 공동대표(윤정옥, 마쯔이 야요리, 인다이 사호르), 판사단(가브리엘 맥도널드, 크리스틴 친킨, 카르멘 알히바이, 비티 문타본, 바그와티, 윌리 무통가), 검사단 및 전문가증인단(조시현, 양현아, 히가시자와, 패트리샤 셸러즈, 우스티 나 돌고폴, 론다 코플론, 프리치 칼소벤)

• 논의 :

1. 2000년법정의 본질과 성격을 성노예제에 대해 어떤 전범자도 처벌한 경우가 없는 극동전범재판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는 상징적인 법정이고 중요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있는 정치적 행위라고 합의함.
2. 현장을 최종개정함.
3. 각 국의 기소장에 개인 피고를 거론하는 것과 히로히토 전 일본국왕을 기소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합의함.
4. 개인피고에 대한 충분한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
5. 각 국의 최종기소장은 11월 6일 이전에 판사단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증거자료는 11월 10일에 제출되어야 함.
6. 평등성(Equality in Action)을 위해 주심 판사제(Presiding Gudge)를 두지 않기로 함.
7. 판사단의 제안으로 2000년법정 후 회의를 열기로 동의함.
8. 2000년 12월 동경에서 열리는 판결은 요약판결의 형태이며, 최종판결은 2001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에 맞춰 열기로 함.

3장 I 국내 캠페인

1. 서울문화제 · 지역캠페인

○ 서울문화제

그동안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운동은 10년간의 지속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으로 다가가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 운동은 특별한 계층만이 참여하는 공간으로 이해된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의 수요시위가 전부였다. 그러나 이번 사업을 통해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적 방법을 개발하고, 또한 10년 동안 개별적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활동해온 연극, 영화, 영상, 춤 등 다양한 장르를 한 곳에 모아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었다는데 큰 성과를 가진다. 따라서 그 대상 또한 성인만이 아닌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 까지 넓혀 세대를 초월하여 인권의 문제를 공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였다. 서울문화제는 정대협이 주관하였다.

문화제 · 캠페인	일시	장소	인원
탑골 캠페인(서명, 선전전)	8. 9	파고다공원	100명
광화문 캠페인(서명, 선전전)	8.9~8.2	광화문 교보소공원	500명
명동 캠페인(서명, 선전전)	9	명동 미지센터	300명
서울 문화제(음악회)	9. 29	100주년기념관 대강당	200명
청소년 문화제(영화제)	11.17 11.25	명동 미지청소년센터	30명
총 5회			1,130명

○ 지역캠페인

- 마산지역 : 경남정신대문제 대책을 위한 시민연대모임

1997년에 시작된 경남정신대문제대책을 위한 시민연대모임(이하 경남 정대연)의 활동을 정리하면서 2000년 12월 일본에서 열리는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의 홍보를 위한 인권문화제를 기획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인권문화제 '못다핀 꽃'은 2000년 11월 3일 정대협의 후원을 받아 경남은행 본점 앞 거리와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마산창원지역의 일반시민과 중고생, 여성단체, 시민단체 회원이 중심이 되어 이루

어진 이 행사는 20여 개의 경남 정대연의 참가단체를 통해 회원에게 홍보하였으며, 경남도민일보 등 언론을 활용하고 기록사진전, 지지서명전, 지문초상화 만들기 행사를 통하여 인원을 확보하였다.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루어진 인권문화제 "못다핀 꽃"은 거리로 나가 20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하여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2000년 법정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었다.

- 대구지역 :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대구 여성회와 대구시민모임이 함께 주최한 '여성인권, 평화, 통일 한마당'은 2000년 9월 23일 국제보상기념공원에서 이루어졌다. 2000년법정을 위한 할머니 그림전시와 집회를 통해 대구 전역의 시민에게 법정을 홍보하였고, 일본군'위안부' 문제 바로 보기 시민강좌를 열어 보다 구체적인 논의의 틀을 마련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여성인권에 대해 고민하는 연대단체인 대구여성회와 2000년법정 개최에 대한 공의작업을 일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행사진행에 있어서는 시민들에게 2000년 법정을 알려내어 서명과 문화행사에 참여를 유도하여 많은 서명을 받고 리플렛을 나눠줌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낼 수 있는 공간과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또한, KBS 대구 라디오방송, 불교 대구 라디오방송에 시민모임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알려내고, 시민강좌에 대한 소개 진행하여 시민강좌 개최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 인천지역 : 천주교인천교구 노인교실(대학)연합회

(주안1동성당, 간석동성당, 부평1동 성당, 갈산동성당)

이번 행사는, 2000년 '노인의 날' 기념으로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홍보와 열린 문화제를 열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공유와 확산을 통한 노인문제를 돌아보는데 그 의의가 있었다고 하겠다.

할머니 그림전시회와 시민서명운동, 영화'숨결' 상영, 각종 문화제를 개최하여 시민들, 특별히 노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었다.

- 진주지역 : 진주민속예술보존회

'의암별제'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진주민속예술보존회의 문화제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기생이었던 '논개'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며 진행되었다. 2000년이 된 지금 우리 민족을 함께 묶어주던 논개는 우리에게는 먼 역사적 인물이 되고 말았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불행했던 지난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되었다. 때문에 이번 의암별제는 과거와 현재의 역사성과 민족성을 잇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여성으로써의 논개, 민족정신의

수호자로서의 논개를 조명하고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여성문제, 민족문제인 정신대 문제를 논개의 정신을 되찾기 위한 화두로써 설정하였다. 불의식, 혼 달래기 굿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의 역사의 한 인물과 아직 청산하지 못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연결하는 큰 성과를 남겼다.

- 제주지역 :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제주조직위원회

제주대학교 총여학생회, 제주대학교 사회학과학생회, 제주여민회, 제주범도민회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12월 일본에서 열리는 여성국제법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주지역의 캠페인으로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인식 확대와 평화, 인권교육의 장으로 마련된 제주위원회는 제주여민회, 제주범도민회, 제주대학교 총여학생회,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학생회, 연락단체는 제주여민회로 구성되었다.

10월 11일 일본 제주영사관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시작한 제주위원회는 11월 29일 아시아 전체 수요시위를 마지막으로 매주 거리캠페인으로 제주지역에 2000년 법정을 홍보하였다.

- 전주지역 : 전주기독살림여성회

전주 기살여는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이 땅에 전쟁으로 인한 여성의 인권유린의 실태와 이 땅의 반평화적 요소를 알려내고 여성의 권익향상과 여성의 평화와 인권이 소중하게 지켜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평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번 행사를 조직하였다. 2000년 8월 12일에는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평화 한마당'라는 주제로 피해자 할머니의 증언과 2000년 법정 설명회, 영화'숨결' 상영이 이어졌다.

또한, 2000년 10월 29일에는 전주객사 앞에서 수요시위를 진행하여 2000년법정을 홍보하였다.

지역문화제	주최단위	장소	인원
전주(8. 9)	전주기독살림여성회	전주시청	300명
인천(10. 2)	천주교인천교구노인교실연합	인천여성문화회관	400명
대구(11.)	대구시민모임	대구국채보상공원	150명
진주(10.29~30)	진주민속예술보존회	진주 축석루	200명
창원(11. 3)	경남정대연	마산경남은행대강당	200명
제주(10.9~12. 5)	제주범도민회·제주여민회 제주대 총여·사회학과	일본영사관,제주시청 제주대학교	연 250명
6개 지역	9개 주최 단체	-	1,400명

2. 학생법정·학생문화제

○ 학생법정

학생법정은 전국학생들의 참여로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일본정부와 여성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정이다. 원래 학생법정은 전국 5개 대학교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예상외로 대학생 사회에서 호응이 좋아 총 12개 대학교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한 학생법정과 문화제를 개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초기 대학생들의 관심은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여성의 성폭력문제 혹은 한일간의 왜곡된 역사 문제로 이는 추상적인 상황이었으나, 학생법정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법정 시나리오를 정리하고 일본군'위안부'문제가 한일간의 문제를 넘어선 아시아, 더 나아가 전 세계의 문제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고 만나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여성인권의 문제임을 분명히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 나아가 학생법정을 개최한 학교 중에서 전남대, 조선대, 부산대의 경우 직접 2000년법정에 학생참가단 15명을 파견하여 세계적으로 이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직접 체험하여 더욱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

학생법정	참가인원	학생문화제	참가인원
서울 학생법정	400명(이화여대)	부산 해양대	100명
조선대 학생법정	100명	이리 원광대	100명
부산대 학생법정	200명	서원대	60명
창원대 학생법정	150명	경기 한신대	200명
동아대 학생법정	100명	전주 전주대	50명
경희대 학생법정	200명	서울 서울대	50명
총 6개 대학교	1,150명	총 5개 대학교	610명

○ 학생문화제

지역문화제의 활성화는, 그간 서울 중심으로 진행되어오던 캠페인을 지역으로 확산시켜 대중화의 길을 터놓았으며, 지역단위 또한 피해자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지원단체로써의 성격을 분명히 가지면서 활동했다는 차원에서 이 운동이 더욱 확산되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더욱 큰 성과는 대구나 전주, 부산 등에서는 지역별로 2000년법정 참가단을 10명 이상씩 파견하여 지역이 갖고 있는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향한 노력을 가늠하게 하였다

3. 전국 릴레이 수요시위 · 아시아연대시위

○ 전국 릴레이 수요시위

그동안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단체는 별로 없었을 뿐더러, 있다 하더라도 개별화되어 있었다. 대구와 마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단체간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지 않았으나, 이번 사업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지역단체간의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아직까지 조직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단계별로 우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한 지역문화제와 릴레이 수요시위를 개최하여 제주와 서울을 잇는 상징성을 바탕으로 각 지역민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릴레이수요시위	주최단위	장 소	인원
제 주	제주대 총여학생회	제주대학교	50명
창 원	경남·창원대 총여학생회	창원 정우상가	50명
서 울	건국대학교 총여학생회	건국대학교	50명
부 산	부경지역여대생대표자협의회	부산역	100명
대 구	영남대 총여학생회	영남대학교	50명
광 주	광주여성회·전남대·조선대	광주역·각학교	200명
전 주	기독살림여성회	전주객사 앞	150명
수 원	한신대·수원 YWCA	수원 중앙극장	50명
대 전	충북지역여대생대표자협의회	대전역	50명
아시아연대시위	한국·일본 등 9개 피해국	광화문교보빌딩	200명
10개 지역	15개 단체		950명

○ 아시아연대시위

2000년 12월 2000년법정을 1주 남긴 상황에서 아시아를 비롯하여 프랑스, 독일 등 2000년법정 성공적인 개최와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에 대한 전 세계의 힘과 의지를 모으는 연대시위가 아시아 9개 피해국을 중심으로 개최되었다. 연대시위는 피해국 대표인 한국의 제안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에서는 일본대사관 앞에서 1시간 30분에 걸쳐 시위와 가두행진을 진행하였다. 연대시위는 11월 29일 수요일 정오에 동시에 진행되어 국가별로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연대시위를 진행하였다.

4. 사이버 캠페인

정대협은 이미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2000년법정을 위한 사이버상의 홍보를 별도로 운영해왔으나, 이 사업을 위해 독자적인 홈페이지의 필요성이 있어, 9월에 개설하여 운영해왔다(www.tribunal2000.org).

사이버 캠페인의 내용으로는 2000년법정의 개요, 사이버 법정, 피해자의 증언, 사이버 서명, 한국캠페인의 내용을 담은 게시판 등을 담고 있다. 후반부에는 인터넷 뉴스 오마이 뉴스와 연계하여 오마이 뉴스에서 사이버 서명을 동시에 전개하여 오프라인 19,149명, 온라인 3,800명 등 총 24,000명의 서명을 받았다.

5. 후원의 밤

정대협 운동 10년을 기념하고, 2000년법정 재정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이 정대협 창립 후 처음으로 연대동문회관에서 10월 25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다. 할머니사진으로 만들어진 영상을 보는 것으로 시작하여 공동대표, 재정위원장의 인사와 다양한 문화공연, 할머니들과 내빈 인사로 진행되었다. 즉석복권과 경품추첨에 이어 정대협 10년의 활동과 2000년 법정을 소개하는 영상물이 상영되었다.

이날은 그동안 정대협 활동에 아낌없는 후원과 지지를 보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함께 하여 아주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며, 모처럼 할머니들과 함께 어울리는 흥겨운 자리가 되었다.

6. 정대협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2000년법정 보고회

○ 학술심포지엄(2000년 11월 16일)

정대협은 2000년법정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다각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2000년은 정대협운동이 10년 되는 해이며, 그동안 준비해왔던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이 개최되는 해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동안 한국에서 진행되어 왔던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운동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0년간의 평가 속에서 새로운 21세기의 운동방향을 전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국내심포지엄을 준비하였다.

국내심포지엄은 전체적으로 두 가지 주제로 이루어졌다. 첫 주제는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운동 10년의 성과와 한계를 짚고, 향후 2000년대를 향한 여성인권운동의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두 번째 주제는 2년동안 준비해온 2000년법정의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그동안 간과해왔던 피해자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번 심포지엄은 10명의 발표자를 포함하여 약 8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으며, 오랜 시간동안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토론에 참여하는 열성을 보였다.

○ 2000년법정 보고회(2000년 12월 27일)

국내외적인 언론의 관심속에서 이루어진 2000년법정은 205명의 참가단이 참가한 가운데 큰 무리없이 이루어졌다. 2000년법정에 참여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과 참가는 했지만 자원봉사 등으로 제대로 법정을 지켜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2000년법정 참가단을 해체하는 기념식을 겸해서 보고집회를 기획하였다. 2000년법정의 경과와 남북공동기소장의 진행과정, 그리고 판결문이 갖는 의미와 향후 운동방향 등을 요약정리 보고하고, 영상과 사진으로 2000년법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약 150명이 참여한 가운데, 1부는 2000년도에 돌아가신 피해자 할머니를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2부에 검사단, 참가단 등의 소감을 듣는 순서를 마지막으로 보고집회를 마무리하였다. 이번 보고집회는 애정을 가지고 2000년법정에 참가한 참가단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 「2000년법정 총서」 출판기념회 및 최종판결 보고회(2001년 12월 26일)

2000년법정의 연구성과물로서 「2000년법정 총서」가 발간되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법적해결을 위한 전망」(법률집),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묻는다 : 사회·역사학적 연구」(진상규명집),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5」(증언집) 이 발간되어 출판기념회를 가졌으며, 이와 함께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의 최종판결 보고회가 진행되었다.

4장 I 국제캠페인

○ 독일·미국·일본캠페인

원래 국제캠페인은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해외교포들을 중심으로 2000년법정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고, 또 현실적으로 2000년법정을 위한 한국측 분담금 10만 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캠페인을 모금과 홍보라는 두 축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독일은 한인교포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었던 재독한국여성모임이 중심이 되어 정대협과 긴밀한 연계 아래 정대협 대표가 파견되어 독일 전역을 돌면서 2000년법정의 의미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상세하게 알려 독일의 언론과 교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미국은, 1995년부터 피해자들을 위한 모금공연을 해왔던 가수 홍순관씨가 이 취지에 동감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홍보와 모금공연을 준비하여, 미국의 한인교회와 교포들이 적극 협력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또 이뿐 아니라, 미국 뉴욕과 유타, 미네소타 등에 있는 한인조직들도 이에 협력하여 자체적으로 영화를 상영하고, 모금공연 등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일본은 히메지 교회와 와세다 대학을 중심으로 가수 홍순관씨가 순회공연을 하여 2000년법정을 널리 알렸다.

이러한 노력들은 외국에 살고 있는 한인교포들이 얼마만큼 위안부 문제가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적은 성금이라도 보태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염원하는지를 보여주었다. 또 고국에 있는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연대의 표시로 그들이 결코 왜곡된 역사, 인권유린의 현장을 잊지 않고 있다는 다짐의 표현이기도 하다

해외	주최단체·개인	일시
독일	재독한국여성모임, 정대협(김윤옥)	2000.9.18~10.2 독일 전역
미국	남가주 한인여성교회연합회, 홍순관	2000.9.20~10.15
	남가주 동부영락교회, 홍순관	2000.9.20~10.15
	남가주 한인연장자센터(박창영)	2000.9~10
	유타주(신옥남)	2000.10.20
	뉴욕한인교회(이학준)	2000.11.7
	북가주 여성교회연합회	2000.9~11
일본	미네소타주 한미 오늘과내일센터(김병문)	2000.9~12
	히메지 교회, 홍순관	2000.11.20~12.5

II.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 전 문

1. 2000년법정의 일정 및 내용
2. 2000년법정 녹취록 (요약)
3. 2000년법정행사
4. 2000년법정 남북공동기소장
5. 약식 판결문 (동경) · 한 글
 · 영 어

II.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 전문

할머니들의 응어리진 해원을 위한 법정

하종문(한신대학교 교수)

20세기 마지막 10년의 한일관계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로 막이 열렸다. 그 10년 동안 가해자인 일본은 물론이고 같은 민족의 눈과 마음에서도 떨어져 있던 저 할머니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으로 나왔다. 너무나 밝은 햇살에 마치 눈이 부시다는 듯 눈을 가리고 수줍은 표정을 머금은 채.

그리고 2000년 12월, 가는 20세기를 감상적으로 되돌아 볼 여유도 없이 우리는 할머니들의 응어리진 해원을 위한 촉판을 일본 도쿄에서 열었다. 치열하게 또 준엄하게. 기소장을 준비하면서 또 법정에 임하면서 할머니들이 겪어야 했던 고초와 수난의 나날이 얼마나 길고 깊은 것인가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심리 일정이 모두 끝났을 때 한 할머니가 법정을 향해 던진 인사말은 "감사합니다"였다.

지난 10년 동안 온 인류의 공분(公憤)을 샀던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분투했던 소리짓, 몸짓이 한국에서 일본에서 그리고 세계를 무대로 펼쳐졌다. 그 발자취 하나 하나는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이 얼마나 야만적이고 인간성까지 파괴하는 최악인가를 일깨워주는 경종이었다. 장정의 도중에 나라 안팎에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며 동참해 준 수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다. 싸움은 결코 외롭지도 초라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왁자지껄한 축제였고 해방의 장이었다.

할머니들의 소망은 지극히 정당하고 소박하다. 하지만 할머니들의 한맺힌 절규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 존재마저 역사에서 말살하려는 시대착오적인 작태 또한 만만하지 않다. 거기에는 지난 10년 동안의 걸음걸음에 손사래를 치고 고개를 돌리는 일본정부의 모습도 겹쳐 있다. "히로히토 유죄!"의 판결은 일본열도의 뒤틀린 심성을 깨우치고 각성을 촉구하는 정의의 외침이었다.

우리는 2000년법정을 준비하고 진행해가면서, 중요한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첫째, 책임자처벌을 회피하는 일본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고발을 넘어서 증거에 의한 사실규명과 형사책임에 대한 법을 적용하는 형사재판을 하고자 한 점, 둘째, 형사재판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양심과 국제법을 기본으로 하는 전세계의 시민이라는 점, 셋째, 사실규명과 법적용을 통해 전 세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권위있는 법정을 만들고자 한 점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러한 우리들의 바램은 현실로 나타났다. 판사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잔혹한 행위의 증언에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그 진실성을 인정했다. 세계적인 권

위를 인정받고 있는 판사들은 정의의 회복과 여성의 존엄회복에 대해 “히로히토 유죄” “일본정부의 배상책임”을 판결함으로써 피해자 여성들의 고통에 응답했다.

2000년법정은 국제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개인에게 국제법적 청구권이 있다는 전제, 무력분쟁 아래의 성폭력에 대한 불처벌의 악순환을 끊고 재발방지를 요구한 점은 기존 국제법이 갖고 있는 성차별적인 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바로 2000년법정은 종전 후 극동군사법정이 해결하지 못한 미완성의 법정을 완성하는 법정이었다.

2000년법정은 또한 한반도의 남북이 하나 되는 자리였다. 비록 헤어진 지 50년이 지났지만, 할머니들이 받아야 했던 고통과 숨죽임의 역정은 하나의 시간이었고, 그것을 풀고자 하는 염원도 한 색깔이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완성된 남북 공동기소장은 일제의 압제에서 풀려나던 바로 그 날의 감동을 담은 민족화해의 선언문이었다고 할 것이다.

이번 2000년법정은 마무리나 결론이 결코 될 수 없다. 즉 과거 10년 동안의 족적을 점검하고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힘찬 출발을 선언하고 다짐하는 출범식이어야 한다. 증오와 멸시가 아닌 화해와 상생의 메시지가 넘쳐흘렀던 그 날, 2000년법정의 감동을 되새기면서 본법정의 전말을 담은 기록을 이제 세상에 내어놓는다.

1. 2000년 법정의 일정·내용

○ 2000년법정 일정

- 12/7 (목) 개막식
12/8 (금) 법정 첫째 날
10:00 - 10:30 판사단에 의한 개회
10:30 - 11:30 국제검사단의 기소요지 발표 : 패트리샤 셀러스, 티나 돌고폴
일본측 변론요지 : 이마무라 츠구오(Amigas Curie)
11:30 - 13:00 남북공동기소(1) : 기소장 낭독, 강제연행, 위안소의 범죄
13:00 - 14:30 점심식사
14:30 - 16:00 남북공동기소(2) : 패전 후, 현재까지의 고통, 개인과 국가책임 기소
16:00 - 16:40 전문가증언(1) 일본제국군대의 구조 / 히로후미 하야시
전문가증언(2) 전 일본국왕의 책임 / 야마다 아끼라
16:40 - 17:30 일본의 기소 : 전 일본국왕과 국가의 책임을 묻는 증거제시
18:30 - 20:30 환영만찬(주관 : 일본 바우넷 재팬)

- 12/9 (토) 법정 둘째 날
10:00 - 11:30 중국 기소
11:30 - 13:00 필리핀 기소
13:00 - 14:30 점심식사
14:30 - 15:05 전문가증언(3) 일본군 위안소의 구조/ 요시미 요시아키
전문가증언(4) 트라우마/ 레파 모라제도빅
15:05 - 16:35 대만 기소
16:35 - 17:00 말레이시아 기소(비디오 상영)
18:30 - 20:30 비디오 페스티벌 : 각 국 위안부 관련(주관 : 일본 바우넷 재팬)

- 12/10 (일) 법정 셋째 날
10:00 - 10:45 네덜란드 기소
10:45 - 12:45 인도네시아 기소
12:45 - 13:15 전문가증언(5) 전시 중 여성에 대한 성폭력 / 게이 맥두걸(비디오)
전문가증언(6) 국가의 책임/ 프리츠 칼쇼벤
13:15 - 14:45 점심식사
14:45 - 15:30 동티모르 기소(45분)
15:30 - 15:45 일본인 위안부(증거제시)
15:45 - 16:15 가해자의 증언(2명)

16:15 - 17:00 국제검사단의 최종기소
 일본변호사의 발언 : 아이타이 구니오, 스즈끼 이소미
 18:30 - 20:30 세계인권의 날 기념 문화의 밤 'SAY YES' Concert(주관: 한국정대협)

12/11 (월) 최근 무력갈등 아래의 성폭력에 관한 국제공청회
 09:30 - 10:00 주최자의 개회사(바우넷, 어센트, Women's Caucus)
 10:00 - 10:30 국제공청회 소개
 10:30 - 12:45 증언(르완다, 동티모르, 과테말라 / 미국, 오키나와, 베트남, 부룬디, 코소보)
 12:45 - 13:15 분석 및 논평
 13:15 - 13:45 오전 공청회 총정리
 13:45 - 14:45 점심식사
 14:45 - 15:00 오후 공청회 소개
 15:00 - 16:45 증언(방글라데시 치파스, 알제리아, 버마,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시에라 레온)
 16:45 - 17:15 오후 공청회의 분석 및 논평
 17:15 - 17:45 여성에 관한 성폭력 유엔 특별보고관의 폐회선언 / 쿠마라스와미
 17:45 - 18:00 폐회식 / 사회자와 피해자
 18:30 - 20:30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와의 만남
 (주관 : 일본 바우넷 재팬)

12/12 (화) 법정 넷째 날
 10:00 - 13:00 판사단의 판결 및 논평
 13:00 - 15:00 데모 / 피해자와 국회의원과의 만남 / 기자회견

2 2000년법정 녹취록(요약)

□ 2000년법정 첫째 날(2000년 12월 8일)

● 개회 선언: 가브리엘 맥도널드(판사)

: "모두 일어서십시오!" 참석자 모두가 일어섰고 판사단이 입장했다.
 가브리엘 맥도널드 의장은 "이 법정은 성노예 문제에 대한 개인의 책임과 일본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정부에 이 법정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응답이 없었다."라고 개회를 선언했다.

● 논고 : 페트리샤 셸러즈, 우스티나 돌고폴 (국제검사)

: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공동검사단은, 일본전쟁 중 생산된 모든 일본군'위안부'를 원고로, 피고로는 히로히토 전 일본국왕, 도조 히데키, 미나미 지로, 이타가키 세이치로, 오카무라 야스지,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키치, 마츠야마 우조 등 히로히토 외 7인을 기소했다.

● 기소요지 : 페트리샤 셸러즈 (국제검사)

: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로, 강간과 집단 강간죄에 기반하여 기소한다. 노예제는 누군가를 소유, 운송하거나 성적, 정신적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1945년으로 돌아간다고 가정해도 노예제는 여전히 범죄로 성립한다. 다양한 증거를 볼 때 아시아 지역 위안소는 일상화되어 있었고, 장군들의 역할 중 하나가 점령지인 한국, 대만 등지로부터 여성을 모아오는 것이었다. 이것은 이들 여성들을 정신적 죽음으로 몰아갔고 결국 고립시켰다. 이러한 고문의 체계와 조직체계에 입각하여 성노예제를 행했던 당시 전 일본국왕 히로히토를 피고로 제시한다. 일본 헌장은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존중하고 있다. 수십 년간 일본이 위안부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방관하고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헌장은 위법이다.

- '위안부' 관계 서류를 공개할 것
- 일본 정부는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
- 사후, 노후 배상 및 보상을 할 것 등을 요청한다. 또한 피해자와 충분한 합의없이 국민기금으로 처리하려는 의도는 적절치 못하다. 공식적 체계를 마련하고 적법한 배상을 하기를 요청한다. 법적 책임과 별도로 도덕적 책임을 묻는다.

질의: 맥도널드 (판사)

: "인도에 반한 죄가 당시의 법에 의해서도 불법인가, 도쿄재판에서 히로히토가 거명되지 않았었는데 다른 증거가 있는가?"

답변: 페트리샤 (검사)

: “모두 그렇다.”

● **변론요지: 이마무라 츠구오 (변호인, 아미쿠스 쿠리에)**

: 1941년 12월 8일, 아시아지역에 전쟁이 시작되었다. 일본군의 점령 아래에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고통받았다. 특히, 여성들이 성노예가 되었다. 이것은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이었다. 이 법정에서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달라. 이마무라 변호사는 인권 문제에 대해 네 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1. 사기에 의해 희생자가 끌려감 : 기소당한 가해자들이 모두 사망했다. 그래도 죄목은 남아있다.
2. 사령관직에서 저지른 범죄 : 일본헌법을 통해 제도적인 것을 마련해야 한다.
3. 국가 책임과 개인의 책임 : 개인에 대해 각각 다른 판결이 나온다면 법적으로 분석하고 확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4. 전 일본국왕 기소에 대해 : 전 일본국왕은 이미 죽었고, 과거 일본법은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존엄한 인물이다. 신중한 검토를 바란다.

일본 정부는 「일본의 사법제도를 통해서 일본군의 유효시효가 말소되었으며, 국제법 위반과 배상문제는 정치적 문제로 한일기본협정과 샌프란시스코 협정에서 이미 해결되었다.」 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또한 전쟁 중 피해자의 기소부분은 일본검찰청이 증거부족으로 기각했음을 밝혔다

● **남북한 공동기소(1)**

: 남한 검사단 박원순, 강정숙, 하종문, 장완익, 김창록, 양현아, 조시현과, 북한 검사단 홍선옥, 정남영, 황호남, 김은영의 인사로 시작되었다.

△ **기소장 낭독: 박원순 (한국 검사)**

: “전후 도쿄재판은 연합국의 이익을 위해서 열렸으며, 다수의 아시아 피해국에 대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2000년법정은 그동안 지연되었던 재판을 실현한 것이며 민중의 재판이다. 여성문제로만 여겨 이슈가 되지 못하고 그동안 침묵을 강요당했으나 이것은 젠더 이슈이다. 당시 남과 북은 식민지였기에 조직적, 체계적으로 끌려갔다. 과거를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은 잘못을 되풀이한다.” 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회 역사적 배경, 강제연행 과정, 위안소의 범죄, 패전 후 일본군'위안부'의 유기나 살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 개인의 책임이나 국가의 책임에 해당하는 법을 적용하여 차례로 기소한다.”고 설명했다.

△ **사회역사적 배경: 홍선옥 (북한 검사)**

: 청진에 있던 군위안소 사진을 제시하며,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관권과 군권을 발동하여 유괴와 납치 등으로 여성을 강제동원하였다. 여성들을 끌고 가 성폭행

하고 학살한 범죄는 조선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 구 일본정부와 군부가 조직적으로 자행한 범죄이다.” 라고 강조했다.

△ **강제연행과 이송: 하종문 (한국 검사)**

: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위안소가 출현되었고,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조직화되었다. 주로 사기, 납치, 인신매매를 통해 연행되었고, 경찰과 헌병이 주도했다.

- 김복동 증언 (건강상의 이유로 비디오 증언)
관동, 홍콩,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위안소로 끌려 다님.

※ (증거자료) 일본 내무성 자료 : 1921년 12월 1일 자료
「중국 관동에 주둔하던 21군이 위안소 설치를 위해 일본군'위안부'를 모아달라.」고 작성된 공식문서이다.

- 김군자 증언
“연행자에게 끌려 트럭을 타고 도착한 곳은 대만 훈춘이었다. 우메즈 요시지로가 사령관으로 있던 71사단으로 관동군 예하부대였다. 저항했다가 폭행당했으며 군인이 많은 날은 40명까지 받았다고 했다. 못견디어 죽는 일본군'위안부'가 누대의 먹이가 되는 것도 보았다.”고 했다.

하종문 검사는 일본군 문서에는 21세 이상 기존 매춘여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12세~20세의 여성이 주로 잡혀갔다. 반세기에 걸친 어둠의 역사를 물러가게 해주시고 올바른 정의를 내려달라며 말을 마쳤다.

△ **강제연행: 황호남 (북한 검사)**

: 전북 김제에서 1935년, 17세 가정부인으로 끌려갔던 피해자의 증언을 시작으로 최봉선, 정훈경, 배수환, 김득순 등의 증언을 통해 소녀에서 주부에 이르기까지 회유, 기만하여 끌어간 사실을 밝혔다.

- 박영심 증언(건강 악화로 비디오 증언)
14살 때 양복점에서 식모살이를 했다. 15세 때인 1938년 3월 일본 순사가 돈벌이가 많이 되는 곳에 가자고 해서 따라갔다. 남포에서 평양으로 갔다가 난징 위안소로 갔다. 3년 정도 일본 이름으로 불리며 일본군'위안부' 생활을 했다. 이후 상하이로 갔다가 싱가포르를 거쳐 버마의 량군위안소로 갔다. 폭격이 심해지자 일본군 56사단에서 성노예 뿐만 아니라 밥을 하는 등 부역까지 했다. 일본군이 아무 말 없이 떠나자 방공호에 숨었다가 중국군에 발견돼 쿤밍 포로수용소로 갔다. 1944년 9월 연합군의 포로가 되었을 때 임신한 상태였으며, 어느 날 갑자기

하혈을 하였다. 아이는 뱃속에서 죽었다.

황호남 검사는 “이에 대한 사진자료가 당시 미군 정보지에 남아 있으며 조선인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병사들의 증언에 의하여 그려진 지도에 위안소가 그려져 있다. 마사노리라는 군인은 임신한 여성이 와카하루라고 증언하고 있다. 요타 스요시의 <라모>라는 책에는 와카하루는 22살로 박영심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 박영심이 최전선 버마에 끌려가 일본군 ‘위안부’ 역할을 했음을 밝혀 56사단장 마쓰이 히데지가 유죄”임을 밝혔다.

황호남 검사가 점심 이후 속개된 법정에서 피해자의 오전 증언이 본인의 것인지 확인하고 시작하였다.

○ 하상숙 증언 : 30세가 넘는 듯한 군복차림의 남자가 끌고 갔다. 내 나이 17세였고, 경상도에서 온 아가씨들이 많았다. 군인들이 줄을 서서 위안소로 왔고, 하루에 30명 정도 받았다. 월경을 할 때는 솜으로 틀어막고 받으라고 했다.

○ 김영숙 증언 : 12세에 머슴살이를 갔다. 일본순사들이 와서 돈벌이 하러 가자고 해서 갔다. 마차를 타고 며칠을 갔는데 도착한 곳이 심양이었다. 그곳에 군 위안소가 단층집 칸칸이 있었다. 높은 담장에 철사망까지 쳐있었고 세파트도 있었다. 나카무라라고 하는 사람이 허부를 칼로 찢기까지 했다.

△ 지속적 강간과 노예생활: 강정숙 (한국 검사)

: 강정숙 검사는 남한 문필기, 김복동 피해자를 증인으로, 지속적 강간과 노예생활을 입증했다.

○ 문필기 증언 : 14세 때 이웃집 아저씨와 경찰이 데려갔다. 만주로 갔다. 말 안 들으면 폐치카에서 인두로 지졌다. 군인들만 왔고, 헌병들이 지키고 있어서 도망은 생각도 할 수 없었다.

○ 김복동 증언(비디오 증언) : 합판으로 만든 방들이 칸칸이 있었다. 방마다 이름이 붙어 있었다. 옆방의 숨소리까지 들렸다. 15세에 강제 연행되어 관동, 홍콩, 싱가포르 등지로 끌려 다녔다.

강정숙 검사는 “연행된 위안소에서 기다린 것은 강간이었다. 그들은 저항했으나 폭력 앞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다. 아편중독과 고립으로 고통당했으며, 흑 도망치다 잡

히면 처형도 서슴치 않았다. 군인과 일본군 ‘위안부’의 통치규정도 있었다. 군포제도, 성병예방 등에 대한 기록도 있다. 강덕경 피해자는 뉴기니아 라바올 위안소의 생활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 패전 직후 조선인 위안부에 자행된 반인류적 행위 : 양현아 (한국 검사)

: “중전과 함께 피해자들의 고통이 끝나지 않았다. 많은 입증자료들이 필요하나 증거들이 은폐되고 파괴되어 아쉽다. 생존자의 육성을 통해 대변하겠다.”

○ 안법순 증언 : 17세에 싱가포르 위안소로 끌려갔다. 어느 날 일본군이 사라졌다. 버려진 채 먹을 것이 없어서 나뭇잎을 삶아 먹었다. 한국에 돌아와 함께 있었던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시모노세키에서 연합군의 폭격으로 배가 파손되어 모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양현아 검사는 현재, 중국 등 강제로 해외에 잔류하고 있는 피해자의 삶과 보상문제, 당시 어렵게 귀국한 여성들도 삶의 대책이 없었던 여러 과정을 되짚어 보았다.

- 비디오 증언

○ 최갑순 증언 : 만주에 혼자서 발로 걸어 귀국하는데 4년이 걸렸다.

○ 박영심 증언 : 연합군 포로수용소에 연행되었을 때 임신 중 수술, 1967년 자궁 절제 수술을 함.

○ 김영숙 증언 : 골절되어 지금도 다리가 아프고 부인병과 방광창으로 고통 당하고 있다.

○ 유순옥 증언 : 작고함.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자 군도로 배를 갈랐다.

○ 정옥순 증언 : 도주하려다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받았고 상처가 수치스러워 목욕을 하지 못한다.

위 증언은 일본군 ‘위안부’ 시절의 구타와 학대로, 현재에도 무절제한 수술, 주사남용과 매독균에 의한 고통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깊은 마음의 상흔이 더욱 심하게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모든 사실과 증거에 대해 법률적 적용과 평가에 대한 논고가 시작되었다.

△ 피고인의 개인책임: 조시현 검사 (한국 검사)

: “피고인들은 지위와 자리에 입각하여 부하들의 범죄를 예방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동, 방조, 교사하였다. 전쟁범죄는 민간인 특히 아동과 여성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는데, 일본의 지배 아래 놓인 사람들을 박해한 반인류적 범죄이다. 연합군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극동 재판에서 피해 아시아인들의 입장을 무시하고 처

벌하지 않음으로써 국제법을 무시했다. 따라서 인도에 반한 범죄와 전쟁범죄로, 히로히토, 도조 히데키, 미나미 지로, 이타가키 세이지로,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키치, 오키무라 야스지, 마츠야마 유조를 기소했다.

△ 일본국가의 책임: 정남영 (북한 검사)

: “조선인 위안부 숫자가 약 20만을 웃돌고 있다며 전체 일본군 위안부의 80% 정도 되는 공인된 숫자이다. 국가 책임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헌장 4조에 의해 성노예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국가는 국가를 구성한 기관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했더라도 그를 방지하기 위한 조건을 취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일본은 1925년 부녀 및 아동매매금지조약에 가입했다. 또한 1930년, 18살 이상의 건장한 남자들에게만 강제노동을 강요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ILO국제조약에 위배된다.” 다음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첫째 날 법정을 마쳤다.

- 철저한 진상조사 규명과 전모 공개
- 책임인정과 공식사죄
- 충분한 국가 배상
- 피해자들의 존엄을 또다시 훼손하는 행위 근절
- 희생된 피해자의 유골을 조사하여 고향에 안장할 것
- 해외 잔류 피해자의 귀국이나 조국 방문을 도울 것
- 특별법을 만들어 죽은 가해자도 형사 처벌하는 교훈을 남길 것
-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이런 범죄가 재현되지 않도록 할 것

□ 2000년법정 둘째 날(2000년 12월 9일)

● 전문가 증언: 천황제도 (야마다 아끼라 / 메이지대 교수)

- 전 일본국왕의 권한에 대하여

: 전 일본국왕에 대해 11년간 연구했다. 전 일본국왕은 국가 원수이며 입법에 대한 절대권력을 가지고 있다. 전쟁선포 또한 전 일본국왕의 절대 권력이다. 1889년에 제정된 명치헌법 상 전 일본국왕은 육해공군을 지휘, 통수하는 기능을 가졌으며 1882년에 전 일본국왕이 반포한 군인칙유에 의해 군인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전 일본국왕이 가지고 있다. 전 일본국왕의 권한은 초헌법적이다.(일본측 증거자료 19) 1936년 쿠데타 시도가 있었으나 쿠데타를 진압한 후, 전 일본국왕의 권력이 더 강화되었다.

- 전쟁과 성노예에 대한 전 일본국왕의 책임

: 전쟁 중 일본군이 중국에서 저지른 잔학행위를 전 일본국왕이 알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외무대신인 히로타 고키, 이시 이타로와 측근 도쿠가와 요시히도가 알고 있었으며, 시종이었던 도쿠가와 요시히도가 알고 있었으므로 전 일본국왕이 모를 리가 없다. 일본군 고관들의 잔학행위 의식 속에 강간부분이 포함되어 있다.(일본측 증거자료 22~25)

일본정부는 중일전쟁 후 군기를 바로 잡으려고, 1941년 전진훈(일명 군인칙유)을 공포하고 전 군에 배포했다. 육군대신 도조 히데키가 전 일본국왕에게 전진훈 원고를 보여주었으며 전 일본국왕이 허가했다. 전진훈의 규정에 여성에 대한 성적폭행 금지내용은 없다. 육군 헌법에 강간부분이 있긴 하나 러일전쟁 당시는 일본군이 1930년대 일본군과 달랐고 그렇게 잔악하지 않았다.

전 일본국왕의 동생 다카마 공의 일기에 동생 미카사 공이 육군의 잔학행위에 너무 놀라 전 일본국왕에게 말했다고 쓰여있다. 또한 성노예제에 대하여 전 일본국왕의 측근인 육군, 해군대신, 참모총장 등 군 부 최고 간부들이 알고 있었다. 그들은 전 일본국왕의 신임을 받아 임명된 사람들로써 비밀사항에 관한 말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 일본군사 관련자료의 행방, 은폐와 보고체계

: 군 관계 중요 문건은 파기하라는 명령에 의해 대부분 소각되었다. 당시 시게하라 내각은 연합군이 전 일본국왕을 전쟁 범죄인으로 재판받을 것을 염려하여 '전 일본국왕에게 책임이 없으며 전 일본국왕은 전쟁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은 모른다'라는 각본을 만들어 움직였다. 1937년 중국의 남경대 강간에 대해 국제언론이 보도한 바 있으나, 일본 신문에는 보도되지 않았다. 전 일본국왕에게는 측근(내무

대신, 혹은 해외소식 특별 리포터)을 통해 보고되는 것이 관행이었다. 전쟁 중大本영으로부터 육해군의 보고가 전 일본국왕에게 매일 문서로 보고되었다. 그 내용은 매우 자세했고, 전쟁 경과는 매우 과장되었다. 다른 것은 상세하게 보고되었다. 가즈코 가와구치 검사는 "위안소 설치와 점령지구 설치 사이의 명령체계에 대한 자료를 증거서류로 제출하였다. 다만 전 일본국왕이 이 모든 잔학행위를 알고 있었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으며 야마다 아키라의 전문가 증언을 마쳤다.

● 중국 기소

△ 기소장 낭독: 주홍준 (중국 검사)

: 1930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20여 만에 달하는 중국여성이 체계적인 조직에 의해 성노예로 살았다. 일본정부에 성노예 대상자를 위한 위령탑, 자료관과 생존자들에게 2000만 엔을 보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작했다.

○ 완 와이와의 증언

14세이던 1944년 일본군에 연행되어 일본군'위안부'가 되었다. 이상한 동굴로 끌려 들어갔고 강간했으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거나 말을 하면 죽이겠다고 협박당했다. 탈출했다가 다시 끌려가기를 세 번이나 반복했다. 세 번째로 끌려갔을 때 나무에 손을 묶어놓고 때렸으며 한겨울에 발가벗겨져 묶어놓은 채 강간했다. (완 와이와는 증언 후 벌떡 일어나 스웨터를 벗다가 쓰러져 법정에서 들것에 실려 나갔으며 병원으로 호송되었다.)

증언이 예정되어 있던 양통 피해자도 건강상의 이유로 2000년법정에 참석했으나 증언은 취소되었고, 15세에 일본군에 납치되어 성노예 역할을 했다는 구지쿠 피해자가 소개되었다. 못 다한 증언은 문서로 제출하기로 했다.

○ 유안 주린의 증언

1922년 7월 12일 생. 1940년에 납치되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거둬받고 따라간 곳이 일본군 부대였다. 군부대 안에 위안소가 있었고 먹을 것도 부족했다. 일본 이름을 받아 문 앞에 걸어놓았다. 탈출을 시도했다가 잡혀와 온몸을 구타당했다. 피임제를 받았고 주사를 맞았는데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한 고급장교가 6개월 동안 독점하기도 했다. '위안부' 생활을 15개월동안 했다. 그 생활로 식물인간이 된 여성도 보았다. 돈을 대가로 받은 적이 없다.

○ 남경사건 강간 피해 증언

일본군이 집에 들어와 물건을 약탈하고 아버지를 죽였으며 어머니를 강간했다.

어린 아이였던 증언자 자신도 강간당했으며, 주위의 많은 여자들이 집단 강간당했고 죽었다.

중국 측 검사는 미국인 선교사가 당시 상황을 촬영했던 필름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관진창 검사는 전문가 증언 형식으로 발언했다. "일본군이 자행한 악랄한 범죄는 국제법과 여러 조약을 위반한 것이다. 국제법 46, 47조 위반사항으로 인권존중과 납치금지가 언급된 이 조약에 일본정부가 1891년 가입했었다. 일본정부는 이 협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면책을 가질 수 없다. 본 법정에서 국제법 및 조약법을 근거해 일본정부를 처벌하고 피해자가 보상받도록 해야 한다."

□ 2000년법정 셋째 날(2000년 12월 10일)

● 네덜란드 기소

△ 기소장 낭독: 구엔트네이먼 (네덜란드 검사)

: “1956년 일본과 네덜란드간의 평화조약 베타비아 케이스에 「네덜란드 국가와 개인차원에서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형사 처벌 조항일 뿐이고, 면책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개개인에 대한 보상 및 배상과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얀 러바헌(Jan Ruff-o’Herne) 증언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태어났다. 일본군이 자바를 점령한 직후부터 군인과 네덜란드 여성 및 아동, 민간인이 일본 전쟁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었다. 미슈지 육군 막소로 끌려간 수천 명의 여성과 아동이 짐승처럼 수백 명밖에 살 수 없는 곳에서 살았다. 일본 군인이 사방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으므로 탈출은 불가능했다. 여성과 아동이 병과 기아로 죽어갔다. 19세에 들어가서 3년간 있었다. 17~19세의 여성수용자들이 카나리 랜드라는 곳으로 이송되었다. 일본어로 된 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으나 끝까지 서명하지 않았다.

일본식 꽃 이름을 지어주었고 한 사람에게 방이 하나씩 주어졌다. 일본 장교들이 방마다 각각 들어갔고 각 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나름대로 저항하려 했으나 칼로 위협하며 강간했다. 3개월 동안 매일매일 강간당했다. 어느 날 갑자기 자바에서 보고라는 곳으로 이송되었고, 크리마 캠프라는 수용소로 옮겨졌다. 성노예였던 사람들을 따로 불러 수용하였다. 누구에게든 폭로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그 후 네덜란드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남편 탐을 만나 결혼했으나, 네 번의 유산으로 임신이 어려워 아이를 입양했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 부부의 성생활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 정대협으로부터 일본의 국민기금에 대해서 들었으나 오히려 국민기금은 굴욕적이고 치욕적이다. 아시아여성기금을 거절한다.

● 인도네시아 기소

△ 기소장 낭독: 누르산바니 (인도네시아 검사)

: 누르 산바니 검사는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였고, 국제 공동기소장 외에 추가된 내용을 들겠다며 시작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들어, “남반부 16군을 총괄하는 군대를 1932년 3월 2일부터 지휘하게 된 다라우치 대장, 하라다카 마쿠지(제4군 총사령관), 다카하시(함대사령관), 도하라 겐지 대장을 기소했다.

1941년 자바에 진군한 일본군은 총 27개의 위안소를 설치했다. 모두 인도네시아

여성으로 해군이 징집해서 운영했고, 하나는 육군소속이었으므로, 일본 국가가 총괄했음을 알 수 있다고 한다.”

○ 이브 수하나 증언

1942년 8월, 부모의 집 앞에서 일본군에게 머리채를 잡혀 납치되었다. 팀방 거리에 있는 위안소로 갔다. 네덜란드 가옥에 감금되었다. 너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다. 동물처럼 취급당했다. 아직 그 집이 남아있으며 그 구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제일 싫은 것이 다리를 벌려 꼭 잡은 것이었다. 방어하려고 노력하면 군인들이 매우 화를 냈으며, 강제로 끌어당겨 얼굴이 통통 부을 때까지 뺨을 때렸다. 자궁이 없어져 결혼도 할 수 없었고, 아이도 가질 수 없었다. 일본 패망 후 집으로 돌아갔지만 부모는 무참히 살해당했고 이모가 돌봐주었다

○ 마르디엠 증언

12세에 보르네오 극장에서 일할 수 있다고 속아서 위안부로 갔다. 모모에라는 일본이름으로 불렸고, 3년 동안 일본군들은 매일 10~15명이 왔다. 특히 군인들은 폭력을 휘둘렀다. 일본군 ‘위안부’를 학생이라고 불렸으며, 위안소는 군대에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14살에 임신했고 처음으로 인공유산 수술을 했다. 마을 원로들이 징집에 가담했다. 1993년 자카르타 법률 고문관 사무실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첫째, 일본정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사죄하라.

둘째, 일본의 젊은 세대가 이런 역사적 잘못을 충분히 인식해야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일본정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되는 금전 배상이 있어야 한다. 3년 동안 설새없이 하루 13시간 이상 성노예로 일했다. 내 인생을 다시 살고 싶다.

안타리니 검사는 “인도네시아의 일본군대 희생자연합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2만 2천명 중에 249명의 생존자가 신원이 확인되어 있다.”고 밝혔다.(인도네시아 기록 첨가)

□ 2000년법정 셋째 날(2000년 12월 10일 오후)

● 전문가 증언: 트라우마 (레파 트라제노비스: 성폭력예방센터)

여성 성폭력 대상으로 임상심리연구를 10년간 했다. 증인이 근무하는 곳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병원으로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강간, 기타 폭력으로 손상된 여성들을 치료하고 있다. 일반적 강간과 전쟁중 성폭력의 차이가 현저하다. 여성이 직면한 상황이 달라진다. 가해자가 군인이라는 것. 강간이 단독이 아니라 운간이라는 것과 반복되는 강간이라는 것. 여성의 육체에 손상이 많다. 칼, 총, 불로 지지고, 벨트로 내리치거나 군인들이 「너희는 적군에 속하는 여성이니 우리가 파괴해야 한다.」는 폭언이 동반된다는 것. 가족이 살해되거나 폭력으로 집이 파괴되는 것을 목격한다는 것.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공포와 굶주림이 수반되고 강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위협적 상황은 여성들의 생리와 심리를 바꾸어 놓는다. 트라우마가 계속되면 쇼크로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신불안, 유기적 화학 반응이 달라지며, 단순한 충격이 아닌 여성의 모든 부분에 대한 피해가 가중된다. 운간 당하는 경우의 여성들이 자살할 가능성이 높다. 전쟁 중 여성이 당한 폭력을 전후 상황 신드롬이라고 부른다.

첫째, 쇼크로 인한 감정위축, 말을 앓고 고립되려고 하며, 부인하는 등의 과정을 겪는다.

둘째, 분노한다. 갑자기 웃거나 분노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정의 극단적인 표현을 한다. 과거가 눈앞을 스치면서 모멸감이나 죄책감을 느낀다. 밖에 나가지 못하고 고립되려고 하며, 사람을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자신감을 상실하여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책임감이 저하되어 가족부양이나 업무 수행 인지도가 떨어진다. 세상이 싫어져 자살을 기도하기도 한다.

셋째, 사회 형태의 변화이다. 관계형성이 어려워져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형태가 달라진다.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결혼하지 않겠다고 한다거나 못하게 되는데 계속 자살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다. 성폭력 이후 아이를 낳은 여인은 아이를 보면, 그 순간이 계속 떠올라 지속적으로 딜레마에 빠진다. 그래서 회복되었다고 믿은 다음에도 자살을 기도한다. 피해자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가정이나 사회가 이해하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 여성이 머무는 곳에서 사회보장이나 심리적 도움이 필요하다. 전쟁 시 강간당한다는 것은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강간했기에 그들이 책임지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가 책임을 지고 처벌하게 되면 굴욕이나 수치감이 감소하게 된다. 자아의 회복이 중요한데 국가가 책임을 지게되면 여성들의 자아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 충격이 한 여성에게 국한된 개인적 문제가 아니다. 이

폭력은 정치적인 문제이고, 여성에게 가해진 체계적인 범죄이기에 이 현상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 전문가 증언: 일본군 '위안부'제도 (요시미 요시아키/ 주오대학 교수)

○ 1965년 9월 야마사키 내무대신 좌담회 기록문에서 발췌

오쿠노 세이스케라는 정치가는, 1945년 8월 15일 공문서를 소각함을 결정하는 것을 문서로 남겼다. 그는 1950년 9월 28일 좌담회에서도 전후 공문서 인멸에 대해 「공문서를 소각하고 군의 물자는 민간에게 전달하라. 시간이 없으면 시나 마을로 보내라. 부녀자들을 도망가게 할 것인지는 지방의 관습에 따라 하라.」고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요시미의 증언에 「노동성, 대장성 등 각 부서마다 미국에서 받은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했다.(증거자료 39)

● 전문가 증언: 일본군대 체계 (하야시 히로후미/ 칸투 카쿠인 대학 교수)

○ 나카소네 야구시로 회고록 발췌

23세 때 해군대위로 1941년 말 인도네시아에 정착하여 대부대를 지휘했다. 원주민을 강간하거나 도박하는 일본군 때문에 위안소를 만들었다.(인도네시아 증거 13)

○ 1998년 10월 9일 전시피해자와 송신도 패소판정 신문기사

2000년 11월 30일 도쿄 고등법원이 송신도 피해자 기소를 '기각' 판결했다. 일본 국가권력이 만든 재판소에서 시모노세키 판결 외에는 원고가 패소하고 있다. 시모노세키 판결도 입법 부작위를 이용한 것이지 원고의 승소는 아니다. 일본 내 피해자가 낸 재판의 현실이다.

일본의 초·중 교과서에 종군위안부의 언급이 거의 없거나 회피하려고 한다. 문부성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교육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도 책임유기이다.

○ 1940년 9월 19일 육군성 부관 가와하라 나오이치의 육군의 공문서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약탈, 방화 등 황군의 본질에서 이탈하는 행위가 보이고 있다며, 「군간부가 교육하라. 위안부에 대해 교육을 하라.」고 쓰여있다.(일본 측 자료 43)

● 전문가 증언: 국가책임 (칼 소벤/ 라이덴 대학 교수)

국제 인도진상규명협의회에서 직책을 맡고 있다. 국가 책임이란 국제적으로 감

행된 불법행위를 국가에 전가 가능한 것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조약이나 협약법 등 국가가 개인이 잘못을 했을 때도 책임을 지는 것으로 고위관리, 관리, 군인 등 모두 포함된다. 한 국가의 공식관리 기관이 정부의 통로로 이용되어 범행을 했다 면 책임져야 한다.

1907년 헤이그 협약 및 규정은 전쟁시에 관련된 1890년에 있었던 것과 비슷한 협약이다. 일본 정부는 많은 협약에 비준하고 있으며, 평화 협약 안 배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 동안 일본정부는 위안부와 관련하여 어떤 협상도 한 적이 없다. 일본군 성범죄는 전쟁범죄이며 인도에 반하는 죄이므로 공소시효가 없다. 또 한 국제적으로 불법행위를 국가가 범했을 경우 자국법보다 국제법이 우선이다.

● 동티모르 기소

△ 기소장 낭독: 카멜리타 모니즈 (동티모르 검사)

: 제한된 시간 때문에 많은 증거자료들을 프리젠테이션으로 하였다. 동티모르는 1942년 6월 20일 일본군 83사단에 의해 침략되었다. 민가를 빼앗아 위안소를 만들고 여성들이 강제 연행되어 위안부가 되었다. 여성과 일반시민들이 강제 노역을 했다. 불리아나, 말리아나, 메모, 마르보 위안소의 피해자들의 증언이다.

피해자들은 생리가 생기기 전에 연행되어 확실히 몇 살이었는지도 모른다. 동티모르 인에 대해 저지른 여성폭력을 고발하는 첫 번째 법정이 될 것이다. 현재 15명의 피해자가 밝혀졌다.

○ 마르타 증언 (비디오 증언)

1944년 일본군이 들어왔고, 집을 빼앗아 위안소를 만들었다. 일본군이 위안소를 관리했으며 방이 3개였다. 투갈로 마을이었다. 가족을 노예처럼 다루었으며 그 상황에서 오빠와 동생이 죽었다. 강간한 사람은 스라무라, 하와노라는 사람들이었다.

일본군을 위해서 일했던 동포들에게 연행되었다. 콘돔을 끼고 강간했다. 10명이 윤간했는데 너무 어려서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었다. 걸을 수도 없었고, 낮에는 빨래를 하고 나무도 하면서 노예처럼 일했다. 여러 여성들이 한 방에 있었다. 눈을 가려서 서로 볼 수 없게 했다.

○ 에스메랄다 증언

일본군이 와서 모든 것을 약탈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몰랐다. 성 경험이 없는 어린 아이였는데 끌고 가서 강간했다. 부모들이 허락하지 않았고 그들은 부모를 죽였다. 낮에는 여자와 남자들 모두 농장에서 일했으나 밤에는 남자들은 집으로 보냈고 여자들은 네 개의 지정된 집에 보냈다. 집이 부족하면 숲

에서 강간한 뒤 죽였다.

● 전문가 증언: 일본인 위안부 (후지메 유키/ 오사카 외국어 대학교수)

공창제도를 연구했다. 1945년 4월 1일 미군이 오키나와에 상륙했을 당시의 오키나와 위안소 지도를 보면 일본군 부대가 있는 곳에는 어디나 위안소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위안부를 나가시 유곽에서 강제 동원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스지 유곽의 책임자에게 위안부를 모으라고 강요했다. 오키나와에 135군에 위안소가 있었다. 또, 스지 유곽에서 군대 위안부로 동원되는 것을 거부하려고 폐업하려 했는데 폐업하지 못하도록 군대가 위협했다는 기록이 있다.

일본인 위안부는 주로 빈곤층, 저소득층의 여성들이었다. 일본인 위안부들이 이미 매춘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래 유곽의 폐업이 자유인데 폐업할 수 없게 국가가 관리했다면 다른 일본 점령지의 여성들과 같이 성폭력 대상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종군위안부 문제가 이슈가 된 현 상황에서도, 일본인 위안부 문제는 매춘으로만 보려는 경향이 있다.

● 가해자의 증언: 전 일본 군인

○ 가네코 야스지 증언

1940년 11월 동지나 관동군 소속 군인이었다. 소화 17년에 산둥성에 주둔할 당시 일본군 위안부를 모으라는 명령을 받고 9명을 모집했는데 그 중 3명이 조선인이었다. 소화 18년 처음 임청현에 있는 위안소에 갔다. 비아라는 곳이었었는데 일본군 위안부는 모두 조선인이었다. 일본인 여성도 있었는데 돈에 묶여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다고 했다. 당시 군인들이 윤간을 해도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 처와 딸에게 이런 사실을 얘기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런 행위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는지 절실히 알게 되었다.

○ 요시오 스즈키 증언

1942년 북지나 관명군 소속으로 중국 산둥성에 종전까지 있었다. 한 군에 5~6명의 일본군 위안부가 있었다. 일본 군의관이 성병검사를 하고 관리했다. 처음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1944년 위안소에 갔다. 전쟁 상황이 불리해지자 어차피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여자랑 놀아보고 생각했다. 특정 여성을 찾아갔었다. 마사오라는 조선 여성이었다. 그녀는 종군 간호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왔었는데 도망가고 싶다고 했다. 그때 그녀들이 강제로 끌려왔었다는 생각을 했다. 강간도 했었다. 지휘관이 군인을 모두 풀어 여성들을 발견하는 대로 강간하라고 했었다. 육군 헌법에는 강간을 하면 4년 이상 형벌을 받는다. 그러나 당시 지나인이라고 차별하였고 「중국여성을 범

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 어차피 죽일 것이니까。」라는 생각이었다. 또 지휘관은 자기 업적에 문제가 되므로 절대 보고하지 않았다.

● 변호인 발언: 아이타이 구니오 (일본 변호사)

: 2차대전과 전후 폭력을 다루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송신도 피해자 재판을 맡았는데, 2000년 11월 30일 도쿄 고등법원은 1930년 아동매매, 여성 성폭력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국제법 위반이 인정된 유래 없는 재판이었다.

두 조약에 대한 위반은 국가 책임을 발하는 것이기에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있다고 판결했다. 동경법정이 국제법정에서 실시한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국제법상 손해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같은 해 12월에 청구권이 소멸된 경우라고 했다. 1999년 전시 성폭력 강제 행위자에 대한 요강을 발표했다. 내용으로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전후 잘못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배상, 형사처벌 등이다.

● 최종기소

△ 우스티나 돌고폴 (국제검사)

: 며칠동안 성노예전범 재판을 열었다. 이 재판정에서 용기를 보여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감동은 컸다. 1933년 일본 정부가 문서로 성노예제에 대한 언급을 했다. 가해자의 증언에서도 강간행위가 처벌 대상이 아니었으며 군 당국에 의해서 장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은 헤이그 조약에 위반 사항이다.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국가책임이다. 여러 전문가의 의견대로 군 차원의 성 계획이 기본협정 때문에 소멸될 수 없다. 개개인 피해자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정부는, 계속 부인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사죄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판사 여러분의 정당한 판결이 필요하다.

△ 페트리샤 셸러즈 (국제검사)

: 아직도 가슴이 뛰고 있다. 사기와 납치를 통해 생리도 안 한 어린애를 강제 연행했었다. 앞의 성노예 피해자 증언을 통해 볼 때 아무도 누구를 소유할 수 없다. 강간당하고 폭행당한 여성들이 최종적으로 자신을 소유한다는 마음으로 자살을 선택하기도 했다. 그 속에서 생존한 여성들도 있지만 그들의 삶은 고단했다.

일본 정부가 개입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전쟁이 끝난 뒤 문서를 은닉하려 했으나 일부 문서가 남아 있다. 당시 육군 대신 이타가키도 명령함으로써 이 제도를 적극 추진하도록 했었다. 데라우치 총독도 위안소를 설치하도록 명령했고 실적이 좋은 사람에게는 상을 주기도 했다. 군의 절대적 실력자는 히로히토 전 일본국왕이었다. 일본군은 종전되어 점령지를 떠나면서 일본군'위안부'는 파괴하면서 위

안소는 파괴하지 않았다.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위안소에 대한 정보는 너무 많다. 1937~1945년 종전까지 군대와 함께 위안소가 설치되었다. 전 일본국왕이 이를 몰랐다고 할 수 없으며,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 2000년법정 넷째 날(2000년 12월 11일 오전)

최근 무력갈등 아래의 성폭력에 관한 국제공청회

● 개회사

△ 바우넷 재팬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해 우리와 함께 공유하시겠다는 여러분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증언을 해주신 덕분에 전범에 관한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3일 동안 8개국의 70여 명의 증인이 증언해 주었습니다. 전후 전범재판에서 성범죄에 대한 것을 처벌하지 않았기에 이제 이것을 처벌해야 합니다. 최근까지도 여성들은 납치당하고 강간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 등지에서 일어났던 성범죄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미군기지가 있는 곳에서 여성이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낸다는 자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여성들의 연대화도 중요합니다.

△ 우먼스 코커스

3일 동안 역사적이라 말할 수 있는 경험을 하였다. 전쟁 중 성범죄에 대해서 용기있게 증언하였고 모두들 감탄하고 있다. 각 국 대표단들은 자신들 국가에 속한 이들을 위해 법적인 바탕에서 정의를 말해주었다. 전쟁 중에 이루어지는 성범죄가 당연한 것처럼 하는 일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 라이나

일본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잘 들었다. 그동안 자행되었던 여성에 대한 범죄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법정을 정부가 열지 못한다면 시민 사회가 의무와 도덕적 사명을 가지고 해야한다. 이 국제법정과 최근 성범죄에 대한 공청회에서 55년 전 여성들에게 저질러졌던 범죄와 최근의 범죄가 비슷한 것을 보았다. 과거 일본군'위안부'들이 겪었던 경험이 오늘날도 재현되고 있다. 여성에 대한 범죄를 제도화된 장치가 있어서 처벌이 가능하게 해야하고 평화와 안보에 여성들이 참여해야 한다.

△ 아센트

유엔을 통해 일본군 성노예에 대한 조사가 되었고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바란다. 인종차별과 성차별에 대해 유엔에서 거론될 것이다. 공청회이기에 판사도 검사도 없다. 증언에 대해 존경심을 가지고 현재 전세계에서 여성들이 겪는 피해와 고통을 듣고 알아야 한다.

● 무력갈등 아래의 성폭력 피해자 증언

△ 베트남 (총지만 증언)

22세에 군의관과 결혼했다. 월남 전에는 고엽제를 비롯한 많은 화학물질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화학물질이 월남에서만 170kg을 사용하였으며, 다이옥신이 주성분으로 많은 독성물질에 노출되었다. 1965년 아이를 낳았는데 바로 죽었다. 두 번째 출산에서 처음 몇 달 동안은 정상아처럼 보였는데, 얼마 지나서 정상아가 아님을 알았다. 31세 아들인데 35kg밖에 안 된다. 1975년에 낳은 아이도 팔이 비틀어진 채 나와서 3개월만 사망했다. 고엽제의 결과라는 것을 알았다.

인권이란 정상아를 낳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살아있는 생물체에 대해 위험한 화학물질을 발사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권리침해다. 이번 공청회를 빌어 미국 정부 쪽에 다이옥신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 버마 (키퍼마 증언)

버마는 196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 버마 종족이 주류를 이룬 정부와 소수민족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군 독재치하에 있다. 군 독재자가 바뀌면서 기본인권마저 침해받고 있다. 언어와 결사의 자유, 이동의 자유도 없다. 1988년 전국적으로 민주주의를 획득하고자 데모를 했고 많은 이들이 사살되었다. 이 운동에 가담한 많은 이들이 태국이나 방글라데시에서 10여년 동안 망명생활을 한다. 민주화 운동을 하는 이들을 고문, 강간, 사법권 외의 처형 등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러다무라는 여성을 대신해서 증언하려 한다. 러다무는 41세의 카란족 농부이다. 1975년 카렌 연합을 상대로 버마 정부군이 소탕작전을 나섰다. 그들은 식량, 재정, 대화, 원로 학살 등 4가지 고립정책을 썼다. 많은 이들이 죽고, 추방되었다. 러다무 가족도 정글에 숨어서 농사를 지었다. 남편이 짐꾼으로 징집당한 뒤 사살되었고 두 아이도 체포되었다. 먹을 것도 없다. 굶주림으로 2000년 4월 태국으로 피신하여 메콩가 난민수용소에서 살고 있다.

△ 과테말라 (올란다 아플라 우리다 증언)

정부와 군대에 의해 자행된 무력분쟁을 견뎌낸 생존자다. 이 분쟁은 40년 동안 생활기반을 파괴하고 가족을 앓아갔다. 매일매일 친구들이 사라지고 가족이 납치 살해되었다. 15세 때 노조를 지지하고 있던 중에 끌려가 묶인 채 20명에게 강간당했다. 몇 번에 걸쳐 의식을 잃었는데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내 위에는 다른 남자들이 있었다. 무력감과 고통으로 삶의 의지가 약해졌다. 산다는 것 자체가 악몽이었다. 현실도피의 생각으로 3개월 동안 시력을 잃기도 했다.

과테말라에는 25,000명의 여성이 강간당하고 실종되었다. 이러한 고통이 반복되

지 않도록 투쟁하고 있다. 나의 고통스런 과거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미래의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 브룬디 (알름 증언 - 스크린 뒤)

20세의 고등학생이다. 친구에게 가려고 버스정류장에 있다가 후투족 반군에게 끌려가 수없이 강간당했다. “너희 종족이 우리에게 잘못했으니 그런 것이고 시작일 뿐이다”라고 했다. 겨우 풀려나 정부쪽으로 갔으나 정부군에게 다시 강간당했다. 가족들에게 얘기했지만 처신을 잘못하고 임신까지 하고 중절을 했다며 말을 믿지 않았다. 가족에게까지 버림받은 것 같아 희망이 없다.

△ 동티모르 (프란시스카 수아레스 증언)

동티모르 독립을 위해 싸웠다. 1999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아이와 나를 납치하였다. 남편이 반정부군이므로 나를 강간한다고 했다. 강간은 지속되었고 5명이 윤간한 적도 있었다. 동티모르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받아주었다. 신체적으로는 치유되었으나 마음은 치유되지 않았다.

△ 오키나와

한국에서 일본군인이 했던 것과 푸엘 토리코에서 미국인이 했던 짓은 모두 같다. 미군부대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결코 안심할 수 없다.

△ 콜롬비아

민중군과 혁명군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 살해나 집단 학살을 당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나같은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사람들이 납치당하고 아이들이 사라지기 시작해 떠나기로 했다. 난민이 되었다.

△ 오키나와 폭력에 대해 반대발언 (수지오 다카자토)

정치적 독재로 갈등을 겪고 있는 소말리아 내란에 파견된 유엔 평화유지군에 의해 여성에 대한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다. 복무하는 군인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푸에 토리고나 다른 미군기지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2차 대전 후 일본을 점령한 미국은 위안소를 오키나와에 다시 설치했다. 군대를 위한 성노예화는 끝나지 않았다. 베트남, 캄보디아, 한국, 오키나와 등 모든 지역에 미군을 위한 위락이라는 강간이 합법화되었다. 태국의 창녀촌은 미군 위락 시설로 처음 시작되었다. 그것은 미국과 당사국간의 체결된 불공정한 협정 때문이다. 미국을 비방하려는 것이 아니다. 누가 진범자인가 하는 것이다.

△ 알제리

회교 근본주의자들에게 납치 당하고 강간당한 여성의 이야기이다. 이슬람 무장 세력단체가 있고 그 수하의 작은 단체들이 여성을 목표로 납치, 강간하고 있다. 알제리 정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나디아는 강간 피해자이다. 아들 알리아스가 테러와 맞서는 조직에 들어가자 테러자들이 집을 포위했다. 가족에 대한 보복이라면서 20명에게 강간당했고 수치감을 느끼면서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 멕시코 (치아퍼스 증언)

25세의 리오 플로리다 주민이다. 아들 둘과 딸이 있다. 멕시코 알타마라 국립병원에서 제왕절개를 통해 아이를 낳기 위해 입원했는데 나와 남편의 동의없이 수술이 이루어졌고 이 수술은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수술이었다. 나는 아직 젊고 아이를 낳을 계획이다. 우리 고장은 아이들이 많이 죽는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한다. 인권이 유린되었다.

△ 방글라데시(페드로시 프리오바르 증언)

파키스탄 군대가 침략했고 대규모 학살이 시작되었다. 전쟁 내내 윤간을 당했다. 파키스탄 군대의 만행 피해자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종전이 되자 적군에 의해 강간당한 여자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곳은 아무 데도 없었다.

△ 과테말라 (제놀티스 증언)

미국인 수녀이다. 미국 정부와 과테말라 정부로부터 고통받았다. 정치적 상황에 이용당했다. 미국에 살면서 세금을 내는데 미국이 다른 나라의 반란군을 도우며 동족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미국이 다른 민족에게도 만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용서를 청한다.

△ 아프가니스탄 (마리암 증언)

소련의 침공으로 나라가 가난해지고 이주민도 생겼다. 근본주의자들이 집권한 뒤 여자와 여성들이 희생되었다. 강간을 피하기 위해 자살한 여성들도 많았다. 우리 가족은 분쟁세력과 아무 관계도 없다.

지하드 집권 당시 남편이 체포되었고 그 후 소식이 없다. 1997년 어느 남자가 쳐들어와 남편이 없다는 것을 말고 조롱하며 큰 딸을 데리고 갔다. 며칠 후에 돌아왔는데 찢어진 옷과 멍이 있어서 강간당한 것을 알았다. 딸은 “엄마, 나를 죽여 줘” 하고 말했다. 우리는 그곳에 더 있을 수 없어서 난민 수용소로 갔다. 이것은 아프가니스탄에 살고 있는 수천 수백만 사람들의 목소리이다.